

碩士學位論文

컨벤션産業의 育成戰略에 관한 研究

- 濟州地域을 中心으로 -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一般行政專攻

梁 柄 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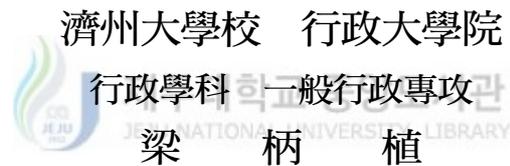
컨벤션産業의 育成戰略에 관한 研究

- 濟州地域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金 性 俊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7月 日



梁柄植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2003年 7月 日

目 次

第 I 章 序 論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第 II 章 컨벤션産業의 理論的 背景 및 分析틀	6
제1절 컨벤션산업의 의의	6
제2절 컨벤션산업의 파급효과	31
제3절 연구분석의 틀	37
第 III 章 濟州地域 컨벤션産業의 實態 및 調査設計	38
제1절 컨벤션산업의 실태	38
제2절 조사설계	51
第 IV 章 濟州地域 컨벤션産業의 政策課題	55
제1절 관리적 측면에서의 정책과제	55
제2절 지원적 측면에서의 정책과제	63
제3절 환경적 측면에서의 정책과제	71
第 V 章 濟州地域 컨벤션産業 育成戰略	76
제1절 정책과제별 육성전략	78
1. 관리적 측면의 육성전략	78
2. 지원적 측면의 육성전략	83
3. 환경적 측면의 육성전략	91
제2절 육성전략 추진주체의 역할	95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95
2.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역할	96
3. 관련업계 및 도민의 역할	99
第 VI 章 結 論	100
參 考 文 獻	102
ABSTRACT	105
設 問 紙	109

표 차 례

〈표2-1〉 국제회의에 대한 개념정의 분류	8
〈표2-2〉 컨벤션산업 육성에 관한 요인	9
〈표2-3〉 컨벤션센터의 시설구성	12
〈표2-4〉 컨벤션센터의 입지유형별 시설	13
〈표2-5〉 국제회의 시설의 종류와 규모	15
〈표2-6〉 규모별 국제회의시설 현황	16
〈표2-7〉 지역별 주요국제회의 시설현황	17
〈표2-8〉 전문국제회의시설 건립추진 현황	19
〈표2-9〉 해외 주요국 컨벤션시설 현황	21
〈표2-10〉 세계국제회의 개최현황(1997~2001)	22
〈표2-11〉 대륙별 국제회의 개최현황(1997~2001)	23
〈표2-12〉 주요국가국제회의개최현황(1997~2001)	24
〈표2-13〉 주요도시국제회의개최현황(1997~2001)	25
〈표2-14〉 국제회의 참가자 규모별 분포	26
〈표2-15〉 아시아지역 주요국가 국제회의 개최현황	27
〈표2-16〉 아시아지역 주요도시 국제회의 개최현황	27
〈표2-17〉 월별 국제행사 개최현황	28
〈표2-18〉 시도별 국제행사 개최현황	29
〈표2-19〉 시도별 국제회의 개최현황	30
〈표2-20〉 컨벤션산업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기준	34
〈표2-21〉 컨벤션개최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예시)	35
〈표3-1〉 세계정상 방문 현황(1991~2001. 12월)	39
〈표3-2〉 제주지역 국제회의 개최현황	40
〈표3-3〉 월별 제주지역 컨벤션개최건수·내도관광객 현황	41
〈표3-4〉 2001년 제주개최 컨벤션내역별 현황	42
〈표3-5〉 연륙교통 이용현황	43
〈표3-6〉 연륙교통 수송능력 현황	44
〈표3-7〉 제주지역 숙박시설 현황	45
〈표3-8〉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시설현황	47
〈표3-9〉 국제회의 유치현황 (2003. 3월 현재)	48
〈표3-10〉 응답대상자의 특성별 구성현황	52

〈표3-11〉 분석대상 언론 시각 및 전문가 의견 총괄표	53
〈표3-12〉 설문지의 구성	54
〈표4-1〉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적 측면	55
〈표4-2〉 컨벤션 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제주도 조직내부)	56
〈표4-3〉 관련업계 컨벤션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교차분석	56
〈표4-4〉 컨벤션 뷰로 설립의 필요성	57
〈표4-5〉 컨벤션 뷰로 설립의 필요성(관련업계)	58
〈표4-6〉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방법(학력별)	60
〈표4-7〉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방법(직업별)	60
〈표4-8〉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방법(공무원 근무기관별)	61
〈표4-9〉 컨벤션유치의 차별화 전략	62
〈표4-10〉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63
〈표4-11〉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개선점	64
〈표4-12〉 행정적 측면의 제도 정비	65
〈표4-13〉 행정적 측면의 제도정비(직업별)	65
〈표4-14〉 컨벤션 운영재원 확보방법	66
〈표4-15〉 자체 수익사업 운영	67
〈표4-16〉 지역주민 의식이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69
〈표4-17〉 지역주민이 갖추어야할 의식(직업별)	70
〈표4-18〉 컨벤션 목적지 지역주민의 지원분야	70
〈표4-19〉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적 측면	71
〈표4-20〉 항공노선 접근성 인식	72
〈표4-21〉 국제회의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	73
〈표4-22〉 국제회의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직업별)	73
〈표4-23〉 숙박시설 수준 인식	74
〈표4-24〉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74
〈표5-1〉 분야별 컨벤션산업 육성전략	76
〈표5-2〉 정책과제별 육성전략 간접조사 결과	77
〈표5-3〉 부산광역시조례와 제주도조례 비교표	85
〈표5-4〉 컨벤션산업 육성 정책에 관한 인식과 태도	95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진행의 흐름	5
<그림 2-1>	컨벤션산업의 효과	31
<그림 2-2>	연구 분석의 틀	37



第 I 章 序 論

제1절 연구목적

“관광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컨벤션산업(Convention Industry)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있는 아주 중요한 지식기반사회¹⁾의 첨단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컨벤션산업은 외화기득률이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이고, 국가홍보 및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국제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산업이며, 지역 이미지 개선 및 관광비수기를 타개하여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산업이다. 또한 타 산업 연관 효과가 아주 큰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국제회의 산업은 민간산업분야에서 단일산업으로는 22위에 해당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규모로 성장하였고, 독일에서는 GNP의 1%, 호주에서는 GDP의 0.9%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은 보고서에서 최근의 전자통신기술의 발달이 국제회의의 형태와 개최 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하여, 오히려 국제회의는 특정 장소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대면하는 만남이라는 매력 때문에 그 미래가 밝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³⁾. 실제로 9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국제회의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다⁴⁾.

우리 나라에서도 서울은 물론 제주도를 비롯하여 부산, 대전, 대구, 수원, 고양시 등 지방의 여러 도시에서도 컨벤션시설을 건립하였거나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제주도는 관광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이 70%를 상회하고 있어서 관광산업의

1) 이무근, 「지식기반 사회의 교육」,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p. 137.

「지식기반사회란 개념은 미국의 사회학자인 Daniel Bell은 이미 1970년대에 산업사회의 후기적 징후를 지식기반사회라고 예견한 바 있다. 지식기반사회란 여러 가지의 단편적인 정보들이 이제는 그 자체가 자원으로 활용되고 상품적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는 의미의 수준에서만 아니라, 조직되고 다듬어진 지식을 생산하고 사용하고 교환하고 확산하고 재구성할 때 거기서 창출되는 생산적 힘과 사회적 가치에 우리의 삶이 크게 의존하게 되는 사회를 말한다.」

2)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조사』, 웃고 문화사, 2000, 머리말

3) Ghislaine de Coninck, “International Meetings in 1996.” UIA Welcome Page. Online. Internet. 11 Sep. 1997.

4) S. Buchbinder, “Second - Tier Advantage.” Association Meetings, Vol. 6. No. 3. 1994, pp. 29~36.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관광의 패턴이 보는 관광에서 즐기고 참여하는 관광으로 바뀌면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침체된 제주관광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 문화적 인프라를 확충하여 나갈 수 있는 컨벤션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2002년 1월 26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공포되어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3월 서귀포시 중문단지에 컨벤션센터의 개관을 맞았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제주지역의 여건 속에서 컨벤션산업의 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정책적 육성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사회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컨벤션 환경은 대내적으로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계기로, 대외적으로는 세계 주요국가들이 관심을 갖고있는 최첨단산업이라는 매력 속에서, 그리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우 1,806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건립하는데 반해 과연 그에 상응하는 수익성과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가? 를 놓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 속에서 과연 제주지역에 있어서 대규모의 컨벤션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컨벤션센터 개관 이후 운영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여야 하는가? 컨벤션 산업의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과연 국제회의도시로서 제주의 성공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등 혼돈 속에 이견들이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주지역 컨벤션산업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논의를 통하여 문제를 도출하고 정책적인 육성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편, 관광은 공장을 유치하기보다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므로 탈공업화라는 시대상황을 고려해 볼 때 주의 깊고 세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만 한다면 지역 진흥을 위한 최선의 전략임에 틀림없다. 특히 제주지역과 같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성, 탐라천년의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 제주로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관광산업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연구지역인 제주도의 경우 1964년 '제주도건설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 본격적인 관광개발이 시작되어, 연간 4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중심지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관광패턴이 단순 경관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바뀌면서 이에 대비한 관광상품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주지역의 관광산업은 정체되어 있다.

특히 다른 지방정부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관광의 1번지'라는 이미지가 점차 퇴색되어가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제·금강산육로관광 등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대처하고 계속해서 한국관광의 1번지, 나아가 동북아의 관광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국내 자연관광지에서 국제 휴양관광지로의 이미지 변화가 필요한 제주관광의 발전적 대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공 인프라 시설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어떻게 하면 21세기 동북아 최고의 컨벤션 목적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에 접근코자 하는 것이다.

첫째, 제주지역에 건립된 컨벤션센터의 현황을 포함하여 컨벤션 산업에 대한 도민 인식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주지역에 걸 맞는 개선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제주지역에서 개최되는 컨벤션에 대한 관리 및 운영능력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제주지역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 지원시스템 등 지원적 측면에서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넷째, 제주지역 컨벤션산업에 대한 대내외적 여건 등 환경적 측면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끝으로 제주지역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방향과 타 지역과 차별화 되고 경쟁력 있는 컨벤션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정책적 육성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내용적 범위로 구분한다.

시간적 범위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 기공식이 있었던 1998년부터 센터가 준공되어 개관을 한 2003년까지의 6년간을 대상으로 하면서 각종 통계자료는 가급적 최신자료를 활용하려고 노력하였다.

공간적·내용적 범위로서 제주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되 세계의 컨벤션산업의 개괄적인 실태에 대해서는 세계 및 아시아 지역에 대하여 대륙별, 국가별, 주요 도시별 실태를 비교분석 하였으며 국제협회연합의 기준에 의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의 지역별 통계 및 제주지역의 통계는 국제협회기준에 맞추기 어려우므로 한국관광공사의 통계를 이용하거나 제주도의 내부자료를 인용하였다. 이렇듯 세계적

컨벤션산업의 실태분석을 토대로 우리 나라의 지역별 컨벤션산업의 실태 속에서 제주지역 컨벤션산업의 문제점 및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으로 문헌 및 논문조사와 사례조사 등의 선행연구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공무원 및 컨벤션관련분야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전문분야의 심층적인 연구를 위하여 도내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과 지방언론의 시각 등을 병행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의 대상으로서는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대응실태 및 컨벤션산업에 관한 주민인식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2003년 4월 21일부터 2003년 4월 25일까지 제주도내 도·시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관광 및 컨벤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주도관광협회 및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직원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집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도내 5개 대학 컨벤션 및 관광관련분야 교수의 언론 특별기고 등과 최근 1년간 도내 3개 일간지에 게재된 사설 및 특집 등을 대상으로 사별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조사하였고, 관련기관인 문화관광부·한국관광공사·(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임원 등 컨벤션관련 현업 부서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으로 연구된 논문의 내용은 전체 6개의 장으로 구성되고 있다.

제 I 장 서론부문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등 전반적인 개황과 함께 연구진행의 흐름을 설명하였다.

제 II 장에서는 컨벤션산업의 개념 및 파급효과 등 이론적 시각에서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해외의 컨벤션산업 실태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우리 나라의 컨벤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였고, 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위한 구성요소와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제 III 장에서는 제주지역에 있어서의 국제회의 시설 보유실태, 국제회의 개최실적, 컨벤션센터 건립 개황 등을 조사분석 하려고 노력하였고 설문지 구성과 자료분석방법 등 조사설계를 기술하였다.

제 IV 장에서는 설문조사결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하여 제주지역 컨벤션산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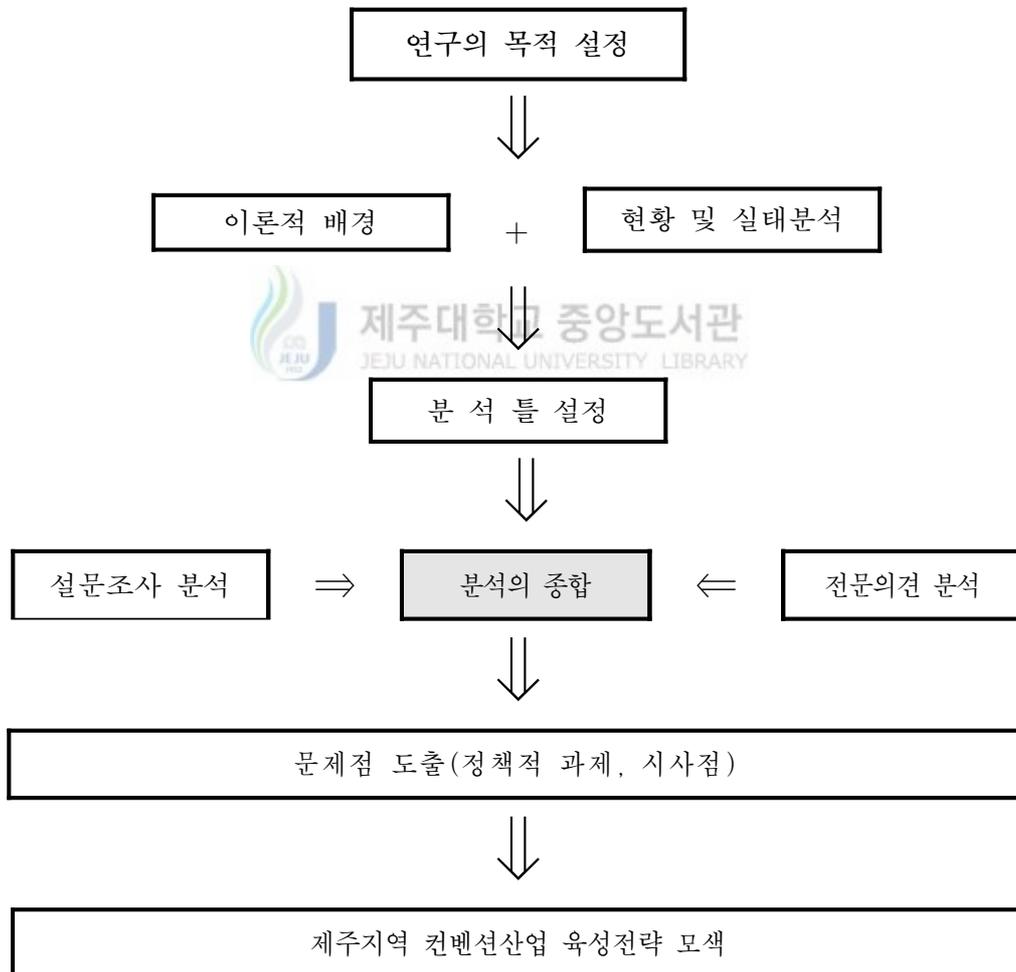
문제점 및 시사점 내지 정책적 과제를 도출시켰고,

제V장은 제주지역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육성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제VI장은 본 연구의 결론부분으로서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제주지역에 부합하는 컨벤션산업 육성전략을 개괄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진행의 흐름은 <그림 1-1>과 같으며, 본 연구가 향후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적 차원에서의 기반구축 및 정책연구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림 1-1> 연구 진행의 흐름



第 II 章 컨벤션産業의 理論的 背景 및 分析들

제1절 컨벤션산업의 의의

1. 컨벤션산업의 개념 및 개최지 결정요인

1) 컨벤션산업의 개념

컨벤션에 대한 개념은 학자별, 기관별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국제회의와 혼용되고 있으나 최근 컨벤션이 여러 형태의 국제간의 모임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⁵⁾ 있음이 일반적인 사실이다.

컨벤션의 개념에 관한 학자들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컨벤션의 개념을 국제회의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설정하고 학회, 대회, 집회 및 회의, 발표회, 강습회 및 연수회, 전시회, 박람회, 무역쇼, 견본시, 스포츠이벤트, 영화제, 미술제, 음악제, 의상제 등의 예술제 또는 축제 등을 포함한 개념을 컨벤션으로 파악하고 있는⁶⁾ 학자가 있다.

또 다른 학자는 컨벤션은 모든 종류의 모임을 통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회의의 개념을 정립하고 컨벤션을 회의의 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나 컨벤션을 물건과 정보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서 교류하는 장소라는 고전적인 개념에 사람과 물건의 만남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컨벤션의 개념을 확대하여 광의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는⁷⁾ 학자도 있다.

또한 국제회의와 컨벤션을 동일개념으로 파악하고 상호 협의성을 기본 전제로 하여 국제친선의 기능, 즉 국제간의 매개체적 기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⁸⁾ 경우도 있다.

또 다른 학자는 국제적 이해관계 사항에 대하여 2개국 이상의 국가 또는 단체가 모여 방침을 결정하고 의사를 교환 또는 개발하기 위하여 관계자가 하는 회합을 국제회의라 정의하고, 좁은 의미의 회의 자체만을 중심으로 한 국제회의와 각종 행사나 전시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제회의로 설정하고 있다.⁹⁾

5) 장운선, “우리 나라 컨벤션산업의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6) 김용관, “경기도 컨벤션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창간호』, 1997, p. 134.

7) 김성혁, 『국제회의산업론』, 1997, pp. 67~68.

8) 이항구, 『관광학서설』, 1995, pp. 203~205.

9) 최태광, 『국제회의 경영론』, 1996, p. 345.

그리고 관련 전문기관 및 우리 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관광기구에 의해 발표된 국제회의에 관한 정의를 종합해보면,¹⁰⁾ 다음과 같다.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 UIA)은 국제기구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회의이거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국내단체가 주최하는 국제적 규모의 회의로서, 참가국수가 5개국이상이며 참가자수가 300명 이상 중에 외국인이 40%이상이며 회의기간은 3일 이상인 회의를 국제회의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국제회의전문협회(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 : ICCA)는 참가국수가 4개국이상이며 참가자수는 100명 이상인 회의를 국제회의로 정의한다. 아시아국제회의협회(Asian Association of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s : AACVB)는 2개 대륙이상에서 참가하는 회의를 국제회의로, 동일대륙에서 2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는 것을 지역회의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Kore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는 국제기구 본부에서 개최하거나 국내단체가 주관하는 회의로서 참가국수가 3개국이상이며 참가자수는 외국인이 100명 이상이며 회의기간은 2일 이상인 회의를 국제회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는 참가국수 5개국이상이며 참가자수가 300인 이상이고 그중 외국인이 100인 이상이며 3일 이상인 국제회의를 말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는 참가자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회의기간이 2일 이상인 국제회의를 지칭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이해가 쉽도록 정리해 보면 <표2-1>과 같다.

이상과 같이 컨벤션에 대한 개념은 학자별, 기관별로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있고, 협의의 관점에서의 국제회의와 광의의 관점에서의 국제회의를 비롯한 세미나, 전시회, 이벤트, 박람회 등을 포함하는 경우인 컨벤션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컨벤션에 관한 개념을 종합하여 협의의 국제회의만이 아닌 포괄적인 광의의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즉, 국내·외 특정인들이 사전에 결정된 특정시기와 장소에 모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도의 인적·물적 정보를 직접 교류하는 수단으로서 국내·국제회의 및 대회, 전시회, 박람회, 각종 이벤트 및 축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0) 김대현, “한국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발전적 전략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1999, pp. 10~11.

따라서, 컨벤션산업(Convention Industry)이란 “사람·물질·정보의 종합적 교류”를 하는 복합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¹¹⁾ 또한 오늘날 국제회의산업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MICE산업(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과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¹²⁾

컨벤션산업의 특성은 첫째, New Business 산업으로서 새로운 산업이며, 둘째, 종합예술산업으로서 회의의 준비작업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며, 셋째, 종합서비스 산업으로서 회의주재 또는 발표자 선정을 제외하고 일체의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는 것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¹³⁾

〈표2-1〉 국제회의에 대한 개념정의 분류

구분	정의주체	정의 기준	참가국수	참가자수*	참가자중 외국인수	회의 기간
국외	국제협회 연합(UIA)	국제기구가 주최또는 후원하거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5개국이상	300명이상	40%이상	3일이상
	세계국제회의전문협회(ICCA)		4개국이상	100명이상		
	아시아국제회의협회(AACVB)	국제회의 : 2개대륙 이상에서 참가하는 회의 지역회의 : 2개국이상의 국가가 참가하는 회의				
국내	한국관광공사(KNTO)	국제기구 본부에서 주최하거나 국내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3개국이상		10명이상	2일이상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법률시행령제2조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가입기관·단체가 개최하는 회의	5개국이상	300명이상	100명이상	3일이상
		국제기구에 미가입 기관·단체가 개최하는 회의			150명이상	2일이상
	새 우리말 큰사전	국제적 이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나라의 대표자에 의해서 열리는 공식적인 회의				

주) : 국제회의 참가자 규모별 분포비율을 보면 1995년 말 현재 대부분 참가자수 1,000명 이하의 회의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특히 참가자수 100~500명 이하의 회의가 과반수 이상인 56.5%를 점하고 있음

자료 : 채용식, 『국제관광정책론』 (학문사, 1997), p. 332. 논자 재작성

11) 김병훈·김현지, 『국제관광론』, 백산출판사, 1999, p. 80.

12) 김병훈·김현지, 전계서, p. 81

13) 김병훈·김현지, 상계서, p. 79

2) 컨벤션 개최지 결정요인

컨벤션개최지 결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컨벤션산업의 육성요인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요인에는 컨벤션산업 유치환경에 관한 요인, 컨벤션산업 파급효과에 관한 요인, 컨벤션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요인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¹⁴⁾ 각 요인별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요약 정리하면 <표2-2> 와 같다.

<표2-2> 컨벤션산업 육성에 관한 요인

구 분	요 인 명	변 수 명
컨벤션산업 유치환경	시설의 편리성·접근성	국내교통의 편리성, 항공노선의 접근성 숙박시설 선택이 용이성, 전문인력 회의장(전시장)의 시설
	지역의 관광자원·언어 소통	풍부한 관광자원, 문화·관광 매력물 언어소통의 원활성, 지리적·입지적 여건
	개최지의 환경	정치적 안정성, 정부의 제도적 지원 개최지의 이미지, 개최지의 기후
컨벤션산업 파급효과	국가홍보·경제발전	국가홍보 효과, 관광객 유치증대 효과 국제적 영향력 증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컨벤션관련산업의 발전
	국제경쟁력 향상	국민의식수준의 향상, 국제수지 개선 최신 정보·기술 입수, 지역이미지의 제고
컨벤션산업 육성방안	유치기반조성·홍보	문화·관광상품 개발, 국제교역전 유치 해외홍보 유치활동 강화 컨벤션 유치·개최 지원
	컨벤션관련 지원	조사 및 연구활동의 강화 컨벤션 전문인력 육성, 전담조직의 설치 관련 법·제도 재정비
	컨벤션시설의 구축	컨벤션시티의 육성·지원 전문·복합 컨벤션시설 확충 기반시설의 확충

자료 : 장운선, 전개논문, p. 75

14) 장운선, “우리 나라 컨벤션산업의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 경영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0, pp. 73~76.

컨벤션 개최지를 결정하기 위한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¹⁵⁾

첫째, 매력성(attractiveness)이다.

컨벤션의 참가여부는 오직 회원 자신에게 달려있어 만약 매력적인 회의목적지가 되지 못하면 참가인원을 모으기가 힘들 것이다. 특히 최근에 동반자나 자녀를 동반한 회의참가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회의목적지의 매력성은 중요하다.

둘째, 접근성(accessibility)이다.

접근성은 참가자들로부터 회의개최지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며, 이 거리는 여행경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항공요금과 관계가 깊다. 같은 매력성이라면 상대적 비용, 즉 여행거리로 참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목적지의 매력성이 강한 경우 심리적 거리감은 실제의 지리적 거리감보다 매우 짧게 나타나며 이는 멀어도 개인에게 강한 매력성을 가지고 있는 행선지인 경우 심리적 거리감이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컨벤션산업의 주요시장이 유럽과 미주시장임을 감안할 때 이들 주요 시장으로부터의 원격성은 컨벤션참가자들로부터 소외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항확충 및 항공 연결망(hub and spoke system)을 만들어내어 컨벤션참가자들의 편리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접근성의 하위요소인 출입국 절차 및 관세통관절차의 간소함, 비자관계 등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나라를 찾아온 컨벤션참가자가 출입국절차 및 관세 통관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참가자는 다시는 우리 나라를 찾지 않을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셋째, 숙박시설(accommodations)이다.

컨벤션산업에서 호텔이 차지하는 비중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고 그래서 호텔시설의 충분한 서비스의 수준은 매우 중요한 속성이다. 특히 컨벤션참가자의 경비 중 약 58%가 호텔에서 사용되므로 호텔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서비스를 해야

15) 김대현, “한국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발전적 전략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pp. 4~56.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호텔요금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또한 성수기에는 객실 난이 초래되므로 여기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하위요소들로는 식사의 질, 객실의 수, 체크인·아웃의 편리함, 전시시설의 구비 등이다.

넷째, 회의장 및 기반시설(infrastructure)이다.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은 전문 컨벤션센터이다. 전문회의장 시설이 컨벤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한 속성이다. 하위 요소들로는 소규모 회의실의 위치 및 수, 공공교통망과의 연결성, 전시시설 등이다.

다섯째, 적정가격(affordable price)이다.

합리적인 가격을 위한 주최국과 주최측의 노력은 경쟁력 있는 회의개최지를 만들어 낼 것이며 항공사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컨벤션참가자들에게 대해 컨벤션 투어 rate를 적용해주는 것도 컨벤션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안전성(safety)이다.

만약 나라가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면 대상자들은 참가를 기피할 것이다. 특히 9.11테러와 발리 폭탄테러이후 국제회의시장은 안전성 가장 중시하고 있다.

일곱째, 서비스 정신(service spirit)이다.

컨벤션시설 등의 하드웨어 부분만으로는 참가자들에게 깊은 만족을 줄 수 없다. 모든 컨벤션관련업체들이 서비스로 무장을 할 때 보다 많은 컨벤션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Gartell은 국제회의의 목적과 물리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개최지 및 장소 선정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회의 개최지로 선정되는 데 필요한 것은 이외에도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¹⁶⁾

2. 컨벤션센터 시설구성 및 컨벤션 개최현황

1) 컨벤션센터의 시설구성 및 입지유형

컨벤션센터의 시설은 크게 주 시설, 지원시설, 관련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주 시설은 컨벤션센터 내에서의 핵심적 활동인 회의, 전시 및 이벤트를 수용하는

16) Richard B. Gartell, "Strategic Partnerships for Convention Planning : The Role of Convention and Visitor Bureaus in Convention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Hospitality Management, Vol. 10, No. 2, pp. 160~162.

시설이며, 지원시설은 주 시설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유지 및 식음료, 서비스시설 등을 의미한다. 또한 관련시설은 주 시설의 운영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으나 컨벤션 방문객의 수용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숙박, 쇼핑, 위락시설 등을 포함한다.17) 컨벤션센터 시설구성의 구체적 내용 및 세부시설의 특성은 <표2-3>과 같다.

<표2-3> 컨벤션센터의 시설구성

구 분	주 요 시 설	세 부 시 설
주 시설	회 의 장	총회의장(Auditorium), 중·소회의장, 지원시설(의장실, 대표단 사무실)
	전 시 장	상설전시장, 기획전시장, 야외전시장, 전시준비작업장, 전시장지원시설
	이 벤 트 홀	다목적 이벤트 행사장, 이벤트 몰(mall), 복합영화관(가변 무대시설, 대형영상시설, 특수음향장치), 미술·공예센터, 공연장
지원시설	관리유지 시설	행사관리시설(음향, 조명, 동시통역, 냉난방, 자동통제시스템), 시설 및 인력관리 설비, 관리운영 총괄
	식 음 료 시 설	대형주방, 식당(대·중·소), 스낵바 등
	공공서비스 시설	옥내외 주차시설, 교통터미널(환승센터), 기타 지원시설(은행, 우체국, 국제통신센터 등)
관련시설	숙 박 시 설	특급 및 중급호텔, 시설운영요원, 오피스텔, 한국전통호텔 등 특성화 시설
	쇼핑·위락·레포츠·문화 시설	관광기념품, 쇼핑몰, 관광음식점, 만국촌, 민속촌, 면세점, 종합휴양업, 상징타워, 광장, 녹지 등
	업 무 시 설	국제업무단지(International Office Park)

자료 : 최승담, 컨벤션산업의 발전과 전략, 세계화시대의 관광산업, 일신사, p. 126에서 필자 재작성

컨벤션센터는 일반적으로 공항, 항만, 고속도로, 지하철 등과 근접한 교통의 요지

17) 최승담, 『컨벤션 건립방안』, 교통개발연구원, 1994. p. 68.

에 입지 하는 것이 보통이며 주변지역에 업무시설, 숙박 및 위락시설, 쇼핑센터 등과 동시에 입지 하여 관련산업과 연계되어 상승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듯이 컨벤션센터의 건립·운영에 있어서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컨벤션센터의 입지 유형은 <표2-4>와 같이 국제업무단지형, 텔레포트(Teleport)형, 테크노 파크(Techno-Reserch Park)형, 리조트(Resort)형 등 4개의 유형¹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2-4> 컨벤션센터의 입지유형별 시설

구분	기 간 시 설	유 발 시 설	지 원 시 설
국제 업무 지역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무역센터 •국제금융단지 •국제업무단지 •국제정보센터 	컨벤션센터, 전시장, 연회장, 물류유통단지, 실내스포츠복합스, 미술관, 영화관, 대규모관광오락시설(카지노, 경마장, 골프장, 주제공원 등), 월드 쇼케이스, 산업단지 및 연구소	호텔, 오피스텔, 쇼핑몰, 면세점, 배후주거단지, 종합교통터미널, 식당, 상가, 공공시설(방송국, 경찰서, 은행 등), 공원시설, 전철, 모노레일, 상징전망타워
텔레 포트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텔레콤센터 •통신위성지구국 •광섬유통신망 •인텔리전트빌딩 •업무단지 	컨벤션센터, 전시장, 영상정보센터, 연구·훈련센터, 기업컨설팅센터, 벤처기업단지, CTV방송국	배후주거단지, 쇼핑센터, 공공오픈스페이스, 호텔, 레크레이션센터, 실내외스포츠센터, 슈퍼마켓
테크 노파 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연구센터 •창업보육센터 	컨벤션센터, 제품생산전시단지, 정보교류센터, 연구지원센터, 연수·교육센터, 첨단기술센터, 관련업무단지	공공오픈스페이스, 호텔, 모텔, 금융기관, 리스업체, 일반기업체, 오피스텔, 공동주택단지, 근린생활시설, 레크레이션·스포츠센터
리조 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벤션센터(전용호텔) •카지노 콤플렉스 •실내스포츠 콤플렉스 	실내·외 주제공원, 골프장, 마리나, 실내·외 워터파크, 경마장, 경정장, 자동차경주장, 실내스키장	콘도미니엄, 한국전통호텔, 유스호스텔, 모텔, 미술관, 민속박물관, 교통터미널, 여행사, 항공사관련사무소

자료 : 최승담 외, 전계논문, p. 50

18) 최승담 외 『컨벤션센터 건립방안』, 1994, pp. 49~50

첫째, 국제업무단지형 컨벤션센터는 국제교통의 거점인 국제공항 및 항만에 인접하여 입지 하거나 공항인접 새로운 도심에 입지 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제업무단지형 컨벤션센터의 개발방식은 숙박, 유통, 전시 및 회의, 무역, 금융기능 중심의 개발방식이 있으며, 국제교역과 교류의 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 국내 종합상사 등의 집적 유치가 필수적이다.

둘째, 텔레포트형 컨벤션센터는 대규모 토지확보가 용이하고 전력공급이 안정적이며, 도심과 근접하여 첨단 정보생산을 지향하는 기업의 업무공간 수요가 있는 곳에 개발되는 유형이다. 최근 미국 등지에서 정보 기기를 중심으로 하이테크 등 Trade Show형태의 컨벤션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종래의 Teleport개념에 컨벤션기능이 복합된 형태가 일본 등지에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셋째, 테크노파크 형 컨벤션센터는 테크노파크의 첨단과학기술 및 연구집적 기능과 연계하여 고도로 전문화 특성화된 고급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컨벤션센터를 조성하고 정보거점을 형성하게 된다. Techno Park는 첨단산업, 연구개발, 주거 및 관광위락기능이 갖추어진 고도의 기술집적 도시를 의미한다.

넷째, 리조트형 컨벤션센터는 컨벤션 유치를 통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또한 일반관광객이 덜 오는 시기에 컨벤션을 유치하여 관광비수기 타개전략으로도 리조트형 컨벤션센터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국제회의시설의 종류

국제회의 시설이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의시설의 종류는 전문회의시설, 준 회의시설, 전시시설, 부대시설 등 4개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시설규모를 정리하면 <표2-5>와 같다.

〈표2-5〉 국제회의 시설의 종류와 규모

구 분	시 설 규 모(요건)
전문회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 회의실 구비 •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 10실이상 구비 • 2,500㎡이상의 옥내 전시면적 구비
준 회의시설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될 수 있는 호텔연회장·공연장 · 체육관 등의 시설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 회의실 구비 •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 3실이상 구비
전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옥내전시면적이 2,500㎡이상 구비 •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5실이상 구비
부대시설	전문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주차시설·식음료시설· 휴식시설·쇼핑시설 등

자료 :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필자 재작성

3) 국내 컨벤션시설 현황

최근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컨벤션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는 전문 컨벤션센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래서 회의는 거의 특급호텔의 회의장 또는 전시장, 체육관 시설 등을 사용하여 왔으며, 〈표2-6〉과 같이 서울특별시가 전국 107개소 중 43개소로 40.1%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 서울 집중현상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그 다음이 부산광역시와 제주도로써 각각 11개소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나마 제주도가 타 시도에 비하여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6〉 규모별 국제회의시설 현황

수용인원 지역별	계(비율)	500명이하	501~1,000명	1,001~1,500명	1,501~2,000명	2,000명이상
계	107개소	37	39	15	6	10
서울특별시	43(40.1)	11	12	12	2	6
부산광역시	11(10.2)	4	3	1	1	2
대구광역시	5	2	1	-	-	2
인천광역시	3	2	1	-	-	-
광주광역시	1	-	1	-	-	-
대전광역시	5	3	1	-	1	-
울산광역시	3	1	2	-	-	-
경기도	2	2	-	-	-	-
강원도	9	3	6	-	-	-
경상남도	3	2	1	-	-	-
경상북도	7(6.5)	-	3	2	2	-
전라남도	1	1	-	-	-	-
전라북도	3	1	2	-	-	-
충청남도	1	1	-	-	-	-
충청북도	-	-	-	-	-	-
제주도	10(9.3)	4	6	-	-	-

주) -시설기준 : 전문회의장, 준 회의장 및 특급호텔의 대회의장

-수용인원 : 극장식 배열을 기준으로 함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1 국제회의개최현황

지역별 국제회의 시설현황은 〈표2-7〉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면 왜 전문컨벤션센터가 아직까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물음에 먼저 컨벤션에 관한 관심의 부족과 초기투자비가 엄청나 재정보화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라고 본다. 5,000명 이상의 중·대형 컨벤션센터 건립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공사비가 엄청나며, 또 완공후의 운영자체만을 통한 수익성의 보장도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한 교통망 등의 편의를 위해 도심 내에서의 컨벤션센터 부지 구입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¹⁹⁾ 그러나 지방자치 본격시행이후 광역단체가 국제회의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전문컨벤션시설의 건립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19) 김대현, “한국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발전적 전략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 45.

〈표2-7〉 지역별 주요국제회의 시설현황

구분	시 설 명	수 용 능 력		시 설 명	수 용 능 력	
		수용인원 (대회의장)	객실수		수용인원 (대회의장)	객실수
서울	호 텔	32 개소				
	힐 턴	3,200	683	리츠칼튼	800	410
	그랜드인터컨티넨탈	1,800	531	웨스틴조선	650	453
	롯데	1,800	1,486	뉴월드	600	211
	신라	1,500	511	팔레스	550	283
	그랜드하얏트	1,500	602	노보텔엠버서더(독산)	580	230
	롯데월드(잠실)	1,500	533	타워	600	218
	JW메리어트	1,300	497	노보텔엠버서더(강남)	500	336
	코엑스인터컨티넨탈	1,300	653	올림픽아	400	269
	쉐라톤워커힐	1,280	623	세종	350	273
	르네상스	1,200	494	아미가	400	200
	스위스그랜드	1,200	398	프레지던트	270	303
	소피텔엠버서더	1,200	417	코리아나	150	345
	캐피탈	1,200	287	로얄	200	305
	홀리데이인서울	1,000	362	엘루이	350	139
	리베라	1,000	181	TEMP(교육문화회관)	1,200	237
	래디슨프라자	900	478	올림픽파크텔	900	241
	준 회의 장	10 개소				
	KLI63빌딩	1,500	-	프레스센터	300	-
	예술의전당	2,600	-	건국대학교새천년관	805	-
	세종문화회관	3,852	-	성균관대학교600주년기념관	800	-
	리틀엔젤스회관	1,280	-	한국외국어대애경홀	230	-
올림픽공원	15,000	-	서울농업무역센터	504	-	
부산	호 텔	8 개소				
	롯데	2,000	806	코모도	700	314
	해운대그랜드	1,200	321	파라곤	500	132
	웨스틴조선비취	800	305	부산메리어트	450	363
	파라디이스	700	521	서라벌	300	162
	준 회의 장	1 개소				
	부산문화회관	208	-			

구분	시 설 명	수 용 능 력		시 설 명	수 용 능 력	
		수용인원 (대회의장)	객실수		수용인원 (대회의장)	객실수
대 구	호 텔	3개소				
	대구프린스	1,000	117	대구파크	300	207
	대구그랜드	500	111			
	준회의장	1개소				
	호텔인터블고	2800	-			
경 주	호 텔	6개소				
	현 대	1,700	449	콩코드	900	307
	코오롱	1,200	318	힐튼	720	324
	웰리치조선	1,500	260	경주TEMP	2,000	270
	준회의장 경북관광개발공사	1개소 700	-			
제 주	호 텔	10개소				
	롯데	1,000	500	하얏트리젠시	400	224
	신라	900	429	서귀포칼호텔	290	225
	그랜드	800	512	크라운프라자	400	224
	오리엔탈	700	313	그린빌라	200	90
	제주칼호텔	630	282	퍼시픽	800	177
기 타 지 역	호 텔	24개소				
	송도비치(인천)	600	202	무등파크(광주)	600	110
	올림픽포스(인천)	400	176	리베라(대전)	1,600	174
	유성(대전)	900	190	롯데(대전)	410	69
	현대(울산)	700	284	코리아나(울산)	400	175
	미란다(경기)	400	192	김스클럽(경기)	300	125
	캐슬(경기)	450	81	휘닉스파크(강원)	800	897
	드래곤밸리(강원)	600	191	설악파크(강원)	500	121
	켄싱턴(강원)	500	109	오대산(강원)	230	306
	인터내셔널(경남)	800	121	동방관광(경남)	260	124
	로얄시그너스(경북)	500	115	티롤호텔(전북)	700	118
	리베라(전북)	600	166	코아호텔(전북)	500	111
	온양그랜드(호텔)	300	151	로얄(인천)	500	118
	준회의장	2개소				
	엑스포공원회의장	223		한국소리문화전당	7,000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1국제회의개최현황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표2-8>과 같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건립 개관된 전문컨벤션시설이 서울 COEX를 시발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부산, 대구 등 4개소, 한국국제전시장(고양시)과 잠실 제2롯데월드 등 2개소는 2004년까지 준공목적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대전과 수원컨벤션센터 등 2개소가 건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표2-8〉 전문국제회의시설 건립추진 현황

시 설 명	시 설 규 모	추 진 방 식	추 진 상 황
코엑스(COEX) www.coex.co.kr	○부지 : 225,000㎡ ○건축규모 : 지하 4, 지상 5 ○주요시설 • 컨벤션홀 7,000석 • 회의실 52개실 • 전시시설 4개홀 ○부대시설 • 사무동 2개동 • 숙박시설 2개동 • 각종 편의시설	○건립주체 : 한국무역협회 ○건립방식 : FastTrack방식 ○부지확보 : 무역협회 자체부지	○'95. 7 타당성 조사 ○'96. 11 공사착공 ○'00. 3 공사준공 ○'00. 5. 16 개관
부산전시컨벤션센터 (BEXCO) www.bexco.co.kr	○부지 : 135,000㎡ ○건축규모 : 지하 1, 지상 7 ○주요시설 • 대회의장 2,800석 • 회의실 22개실 • 전시실 4개홀 ○부대시설 • 옥외전시장 • 각종 편의시설	○건립주체 : 부산시/BEXCO ○건립방식 : 설 계 시 공 일 팔 입 찰 동 시 시 공 방 식 ○부지확보 : 국 방 부 소 유 부 지 매 수 (교 환)	○'98. 10 공사착공 ○'01. 4 공사준공 ○'01. 9. 13 개관
대구전시컨벤션센터 (EXCO Daegu) www.excodeaegu.co.kr	○부지 : 21,000㎡ ○건축규모 : 지하 4, 지상 5 ○주요시설 • 컨벤션홀 4,200석 • 회의실 11개실 • 전시실 2개홀 ○부대시설 • 옥외전시장 • 각종 편의시설	○건립주체 : EXCO Daegu ○건립방식 : 시와 민간합작 ○부지확보 : 대구시 현물출자	○'97. 5 공사착공 ○'00. 12 공사준공 ○'01. 4 개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JEJU) www.iccjeju.co.kr	○부지 : 55,000㎡ ○건축규모 : 지하 2, 지상 5 ○주요시설 • 탐라홀 4,300석 • 회의실 17실 ○부대시설 • 상업시설 • 각종편의시설	○추진주체 : 제주도 ○건립주체:(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방식 : 민관합동 방식 ○부지확보 한 국 관 광 공 사 현물출자	○'98. 3 기공식 ○'99. 12 건축공사 착공 ○'02. 12 준공 ○'03. 3 개관

시 설 명	시 설 규 모	추 진 방 식	추 진 상 황
한국국제전시장 (KINTEX) www.kotra.or.kr /koyang	○부지 : 330,000m ² ○건축면적 : 274,000m ² ○전시장면적 : 178,000m ² ○부대시설 : 60,000m ²	○건립주체 : 경기도 ○운영주체 : KOTRA ○건립방식 : 설계시공일괄입찰 ○부지확보 : 고양시 제공	○'99. 4 : 전시장 입 지확정 ○'00. 2 : 건립단 출범 ○'02. 5 : 설계착수 ○2004년 : 완공예정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 : 26,550평 ○건축규모 : 지하5, 지상36 ○주요시설 • 컨벤션시설 : 5,000평 ○부대시설 • 로비, 동시통역실, 준비실, 부속실	○건립주체 : 롯데그룹 ○부지확보 : 자체매입('87.12)	○'98. 6 : 착공 ○2004년 : 완공예정
대전컨벤션센터	○부지 : 92,400m ² ○건축규모 : 지상10층내외 ○주요시설 • 대회의장 : 2,000석 • 중소회의장 : 10실 • 전시장 : 20,000m ² ○부대시설 등	○건립주체 : 대전광역시 ○건립방식 : 시와 민간 공동	○'99. 7 : 타당성조사 ○'01. 9 : 기본계획 구상 ○2009년 : 완공목표
수원컨벤션센터	○부지 : 416,000m ² ○주요시설 • 대회의장 : 2,500석이상 • 중소회의장 : 10실 • 전시장 : 21,000m ² ○부대시설	○건립주체 : 수원시 ○건립방식 : 민자유치 ○부지확보 : 민자유치	○'96. 12. : 타당성 조사 ○'01. 9 : 기본구상 ○2009년 : 완공목표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0국제회의개최현황 및 2001국제회의개최현황

4) 해외 컨벤션시설 현황

세계 각국의 컨벤션 시설 중 <표2-9>와 같이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 건립된 것은 회의장이 고정식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건립된 것은 이동식이 주류

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대형회의장에는 중소규모의 다수의 회의장 시설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인공위성 송수신 장치와 종합정보통신망(ISDN)을 통한 화상회의 및 비디오회의 시스템 등 첨단 시설화 되고 있다.

〈표2-9〉 해외 주요국 컨벤션시설 현황

국 가	시 설 명	소재지	회의장 최대홀 수용인원	설 립
홍 콩	Hong Kong Conventio & Exhibition Center	홍 콩	2,600명/이동식	1988
일 본	Pacifico Yokohama	요코하마	5,000명/고정식	1991
	Okinawa Convention Center	오카나와	4,000명	1987
싱가포르	Singapore Int'l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SICEC)	싱가포르	12,000명/이동식	1995
말레이시아	Putra World Trade Center	쿠알라룸폴	3,500명/이동식	1985
태 국	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	방 쿽	5,700명/이동식	1991
대 만	Taiwan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타이베이	3,100명/고정식	1989
독 일	International Congress Centern Berlin	베 를 린	5,000명	1979
	Messe Zentrum Nuremberg	뉴렘베르크	5,000명	1991
프 랑 스	Nice Convenion Center The Acropolis	니 스	5,000명	1985
필 리 핀	Philippine Int'l Convention Center	마 닐 라	4,000명	1976
미 국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뉴 욕	3,600명	1986
	McCormic Place	시 카 고	4,319명/고정식	1960
스 위 스	Kongress Zentrum Messe Bzsel	바 젤	9,400명/고정식	1984
캐 나 다	Montreal Convention Center	몬트리얼	6,000명/고정식	1983

자료 : 교통개발연구원(1996), 『컨벤션센터 건립방안』

5) 컨벤션산업의 세계적 흐름

(1) 세계국제회의 개최현황

한국관광공사에 의하면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²⁰⁾의 기준에 의한 2001년 세계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는 <표2-10> 에서처럼 총 9,259건으로 2000년도 9,433건에 비해 1.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0년대 들어 전세계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의 60%이상을 차지하였던 유럽은 그 점유율에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아시아 지역과 호주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²¹⁾

<표2-10> 세계국제회의 개최현황(1997~2001)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개최건수(건)	9,273	9,498	9,465	9,433	9,259
증 감 륜(%)	3.14	2.43	-0.35	-0.34	-1.9

자료 : 2001국제회의 개최현황, 한국관광공사

2001년도 개최된 국제회의를 기준으로 대륙별 개최현황, 국가별 개최현황, 도시별 개최현황, 참가규모별 개최현황, 아시아지역 개최현황 등을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륙별 개최현황을 보면 <표2-11> 과 같이 ①구주 ②미주 ③아시아주 ④아프리카주 ⑤대양주 순이고 유럽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는 총 5,339건으로 예년과 같이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유럽주 지역은 전년보다 개최건수가 증가한 반면 미주·아시아주·대양주는 소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20) UIA 통계기준 : 국제기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
국제기구에 소속된 국내지부가 주최하는 국내회의 가운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회의

① 전체 참가자수가 300명 이상 ② 참가자중 외국인이 40% 이상
③ 참가국수 5개국 이상 ④ 회의기간이 3일 이상

21) Coninck, "International Meetings in 1996."

〈표2-11〉 대륙별 국제회의 개최현황(1997~2001)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계	9,195	100	9,468	100	9,383	100	9,433	100	9,259	100
아프리카주	498	5.41	442	4.67	436	4.65	380	4.0	394	4.3
미 주	1,857	20.10	1,966	20.76	1,990	21.21	2,103	22.3	1,958	21.1
아시아 주	1,294	14.07	1,274	13.46	1,255	13.37	1,234	13.1	1,185	12.8
대 양 주	350	3.81	403	4.26	359	3.83	416	4.4	383	4.1
구 주	5,196	56.51	5,383	56.85	5,343	56.94	5,300	56.2	5,339	57.7

자료 : 2001국제회의의 개최현황, 한국관광공사

둘째, 국가별 개최현황은 〈표2-12〉와 같이 2001년 기준으로 상위 5개국을 살펴 보면, ① 미국 1,195건(12.91%) ② 영국 615건(6.64%) ③ 프랑스 600건(6.48%) ④ 독일 544건(5.88%) ⑤ 이탈리아 414건(4.47%) 순서로 나타났다.

2001년도에 괄목할 성장을 보인 나라의 순위를 보면 그리스(32위→21위), 한국(24위→18위), 폴란드(28위→23위)등이며, 개최건수로는 스웨덴(139건→194건), 핀란드(150건→184건), 한국(109건→134건)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개최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2001년 우리 나라는 134건을 개최하여 세계18위에 오르면서 순위 및 개최건수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표2-12〉 주요국가 국제회의 개최현황(1997~2001)

국 가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순 위	건 수	순 위	건 수	순 위	건 수	순 위	건 수	순 위	건 수
미 국	1	1,195	1	1,303	1	1,202	1	1,190	1	1,054
영 국	2	615	3	613	3	608	3	644	3	593
프 랑 스	3	600	2	632	2	633	2	654	2	647
독 일	4	544	4	591	4	602	4	558	4	519
이 탈 리 아	5	414	5	430	5	384	5	380	5	379
스 페 인	6	340	8	331	8	306	9	301	7	300
벨 기 에	7	317	9	312	9	294	8	307	8	295
호 주	8	308	6	361	7	310	7	337	9	294
네 델 란 드	9	293	7	348	6	366	6	342	6	341
스 위 스	10	240	10	244	13	213	13	223	10	260
오스트리아	11	231	12	230	10	246	10	283	10	260
일 본	12	215	13	227	12	220	11	238	12	250
캐 나 다	13	208	11	242	11	240	12	230	13	227
스 웨 덴	14	194	17	139	17	150	14	188	15	158
핀 란 드	15	184	15	150	14	185	16	171	14	174
중 국	16	159	14	164	15	158	15	177	35	62
덴 마 크	17	152	16	146	16	153	18	148	16	146
한 국	18	134	24	109	25	97	35	58	25	95
싱 가 포 르	19	120	19	124	18	140	19	131	17	138
포 르 투 갈	20	116	20	118	23	109	17	167	23	101
그 리 이스	21	110	32	87	20	119	23	103	20	109
노 르 웨 이	22	110	18	137	19	131	21	117	18	114
폴 란 드	23	105	28	92	26	96	28	89	27	90
헝 가 리	24	99	21	114	21	116	29	88	22	103
남 아 공	25	95	26	96	22	115	22	108	19	110
브 라 질	26	94	22	113	28	91	26	91	26	91
러 시 아	27	90	28	93	27	95	25	96	29	84
인 도	28	85	30	91	24	107	20	122	21	106
태 국	29	81	27	94	28	91	34	60	31	80
아르헨티나	30	79	23	110	32	80	33	61	33	67

자료 : 2001국제회의 개최현황, 한국관광공사

셋째, 2001년 도시별 개최현황을 보면 〈표2-13〉 과 같이 ①파리 229건(2.47%) ②런던 191건(2.06%) ③브뤼셀 188건(2.03%) ④비엔나 140건(1.51%) ⑤싱가포르 120건(1.30%)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에 크게 성장한 도시로는 서울(20위→8위), 스톡홀름(24위→12위), 헬싱키(26위→18위), 이스탄불(48위→29위) 등이다.

서울에서는 2001년에 107건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전년도 20위에서 8위로 순위 및

개최건수에서 역대 최고의 기록을 경신했으며 세계 10대 주요개최도시에 합류하였다.

〈표2-13〉 주요도시 국제회의 개최현황(1997~2001)

도 시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순위	건수								
파 리	1	229	1	276	1	247	1	249	1	249
런 던	2	191	3	195	4	160	2	200	2	205
브뤼셀	3	188	2	209	2	187	3	185	3	182
비엔나	4	140	4	157	3	165	4	183	4	178
싱가포르	5	120	5	124	5	140	6	131	6	138
제네바	6	119	9	105	18	74	7	108	5	146
베를린	7	114	7	112	6	136	8	105	11	97
서울	8	107	20	74	24	65	37	43	22	70
코펜하겐	9	105	10	103	8	113	9	104	8	106
시드니	10	95	6	121	9	106	16	81	16	82
암스테르담	11	91	8	109	7	125	5	137	7	112
바르셀로나	12	90	14	89	25	64	22	74	12	93
스톡홀름	12	90	24	71	20	72	12	98	16	82
워싱턴	14	89	11	100	10	103	11	102	9	100
로마	14	81	16	81	16	78	15	87	14	88
홍콩	16	77	18	76	14	84	20	76	9	100
부다페스트	16	77	13	93	13	85	21	75	16	82
헬싱키	18	76	26	69	12	86	17	80	20	77
뉴욕	19	74	12	98	11	88	14	92	13	89
스타스부르크	20	73	20	74	15	80	17	80	15	87
마드리드	20	73	14	89	17	76	13	96	19	80
리스본	22	67	25	70	25	64	9	104	26	62
멜버른	23	64	19	75	29	60	19	79	27	57
프라하	24	62	22	73	18	74	23	64	21	72
부에노스아이레스	25	59	17	77	22	69	32	46	29	50
방콕	25	59	29	62	32	51	35	44	28	52
민헨	27	57	22	73	30	55	37	43	24	65
몬트리올	28	55	27	65	31	53	24	63	33	48
이스탄불	29	52	45	40	-	-	56	31	39	42
듀블린	30	51	45	40	47	38	54	34	38	43

자료 : 2001국제회의 개최현황, 한국관광공사

넷째, 참가규모별 현황을 보면 <표2-14> 와 같이 2001년 개최된 국제회의 중 100~500명 규모의 행사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47.73%)을 차지하였으며, 100명 이하가 참가한 소규모 회의의 비중(11.45%)이 다소 늘고 1,000명 이상의 대형 국제회의는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19.39%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총 134건 중 참가자수가 명확하게 밝혀진 64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100명 이하가 4건, 100~500명 규모가 18건, 500~1,000명 규모가 17건, 1,000~3,000명 규모가 21건, 3,000명 이상 규모가 4건으로 나타났다.

<표2-14> 국제회의 참가자 규모별 분포

(단위 : %)

구 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00명 미만	11.45	9.74	13.13	12.78	11.45
101~500명	47.73	53.43	57.52	54.70	61.22
501~1,000명	18.08	17.67	15.43	17.17	14.47
1,001~3,000명	14.46	13.56	9.47	11.21	9.36
3,001명 이상	4.93	5.60	4.45	4.14	3.50

자료 : 2001국제회의의 개최현황, 한국관광공사

다섯째, 아시아 지역은 대륙별 개최순위에서 유럽, 미주지역에 이어 연속 3위를 차지하였다. 개최건수에 있어서는 '00년(1,234건)에 비해 49건이 감소한 1,185건이며 대륙별 구성비도 '98년 13.5%, '99년 13.4%, '00년 13.1%에서 2001년 12.8%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표2-15> 와 같이 일본 215건(아시아 내 점유율 18.10%), 중국 159건(13.4%), 한국 134건(11.3%)순이며,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가 감소한 반면, 한국(109→134건), 말레이시아(44→55건), 대만(27→35건)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우리 나라는 '00년도의 109건에서 25건 증가한 134건 개최로 아시아지역 국가에서 3위를 기록하였으며, 시장점유율도 '00년 8.83%에서 11.3%로 증가하였다.

〈표2-15〉 아시아지역 주요국가 국제회의 개최현황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국 가	순 위	건 수	순 위	건 수	순 위	건 수	순 위	건 수	순 위	건 수
일 본	1	215	1	227	1	220	1	238	1	250
중 국	2	159	2	164	2	158	2	177	9	62
(+ 홍콩)									(4)	(100)
한 국	3	134	4	109	5	97	9	58	5	95
싱가포르	4	120	3	124	3	140	3	131	2	138
인 도	5	85	7	91	4	107	4	122	3	106
태 국	6	81	6	94	6	91	8	60	7	80
말레이시아	7	55	8	44	8	60	6	68	8	67
이스라엘	8	41	4	109	7	86	5	97	6	81
대 만	9	35	10	27	10	26	10	39	12	24
인도네시아	10	32	-	25	-	5	-	34	-	38

자료 : 2001국제회의 개최현황, 한국관광공사

여섯째, 아시아지역 도시별 개최현황은 〈표2-16〉 과 같이 싱가포르와 서울이 각각 120건과 107건을 개최하여 1, 2위를 차지했다. 2001년도 국제회의 개최건수가 증가한 도시는 서울(74→107건), 칼라룸푸르(35→40건), 마닐라(17→23건)로 나타났다. 서울은 1999년도 65건에서 2000년도 74건, 2001년도에는 107건을 개최하여 세계 8위의 기록과 함께 아시아 2위로 확고한 자리 매김을 하였다.

〈표2-16〉 아시아지역 주요도시 국제회의 개최현황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도 시	순 위	건 수	순 위	건 수	순 위	건 수	순 위	건 수	순 위	건 수
싱가포르	1	120	1	124	1	140	1	131	1	138
서울	2	107	3	74	3	65	8	43	3	70
홍콩	3	77	2	76	2	84	2	76	2	100
방콕	4	59	4	62	5	51	6	44	5	52
도쿄	5	46	6	53	4	63	4	59	4	64
칼라룸푸르	6	40	8	35	9	32	5	47	9	41
베이징	7	39	5	55	7	42	6	44	10	36
뉴델리	8	31	9	32	8	34	10	42	10	36
타이페이	9	28	-	27	-	26	-	29	-	24
마닐라	10	23	-	17	-	27	-	43	-	49

자료 : 2001국제회의 개최현황, 한국관광공사

(2) 국내 국제행사 개최현황

우리 나라에서 개최된 2001년 국제행사는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표 2-17>과 같이 총 556건으로 국제회의 294건, 전시회 128건, 기타행사가 134건으로 나타났다.

월별 개최현황을 보면 10월, 9월, 6월, 5월 순으로 나타나 주로 가을철과 봄철에 국제행사가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17> 월별 국제행사 개최현황

구 분	계	국제회의	전 시 회	기 타
계	556건	294	128	134
1월	10	4	4	2
2월	18	7	6	5
3월	23	6	11	6
4월	50	27	13	10
5월	57(④)	37	12	18
6월	58(③)	33	18	7
7월	45	24	12	12
8월	51(⑤)	20	12	19
9월	74(②)	45	11	18
10월	105(①)	56	21	28
11월	49	26	16	7
12월	16	9	5	2

자료 : 2001국제회의 개최현황, 한국관광공사

국제행사의 시도별 개최현황을 보면 <표2-18> 과 같이 총 556건 중 332건이 서울에서 개최되어 59.71%의 점유율을 나타낸다. 특히, 국제회의 및 전시회의 서울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진 반면, 이벤트 및 지방축제는 각 지역별로 분산 개최됨을 알 수 있다.²²⁾

22) 본 통계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국내의 국제행사 개최단체, 호텔, 전시장, 국제회의기획업체, 대학, 신문사 등 국제행사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를 조사 집계한 것임. 본 통계에 집계된 국제행사는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 중 참가자가 3개국이상, 외국인 참가자수가 10명 이상인 순수 국제회의, 전시회, 기타행사를 포함하고 있음.

〈표2-18〉 시도별 국제행사 개최현황

구 분	계	국제회의	전시회	기 타
계	556건	294	128	134
서울특별시	332(①)	196	96	40
부산광역시	38(②)	14	15	9
대구광역시	19	2	12	5
인천광역시	7	6	-	1
광주광역시	2	1	-	1
대전광역시	16	13	1	2
울산광역시	4	3	-	1
강원도	20	7	-	13
경기도	20	11	3	6
경상남도	14	2	1	11
경상북도	20	10	-	10
전라남도	8	1	-	7
전라북도	15	3	-	12
충청남도	6	2	-	4
충청북도	8	4	-	4
제주도	27(③)	19	-	8

자료 : 2001국제회의 개최현황, 한국관광공사

한편,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개최된 대표적인 컨벤션을 보면 1979년 PATA총회, 1982년 제8차 아시아태평양 국제잼버리대회, 1984년 ASTA총회, 1985년 IBRD/IMF 연차총회, 1986년 제10회 아시안게임, 1988년 제24회 올림픽대회, 1989년 세계성체대회, 1991년 세계 기계전, 1993년 대전 엑스포, 2000년 ASEM 회의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²³⁾

우리 나라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는 2001년인 경우 총 294건으로 전년도 292건 대비 소폭증가 하였으며 외국인 참가자수는 전년도 33,562명보다 7,063명 증가한 40,625명(21.04%)이었다. 외국인 참가자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1,000명 이상인 대형 국제회의는 4건으로 변동이 없었던 반면, 500명 이상인 국제회의가 지난해 6건에서 올해 14건으로 대폭증가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⁴⁾

23) 장길수, “컨벤션산업과 지역경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 4.

24) 한국관광공사, 『2001 국제회의개최현황』, p. 21.

2001년도를 기준으로 월별 국제회의 개최현황을 보면 10월이 56건으로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9월이 45건, 5월이 37건으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참가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①100~299명(92건) ②50명미만/300~499명(54건) ④500~999명(36건)순으로 나타났다. 50명이상~500명 미만인 중소규모회의가 총 180건으로 전체의 61.22%를 차지하면서 2000년도보다 증가한 반면, 참가자수가 1,000명 이상인 대형 국제회의는 2000년도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시도별 국제회의 개최현황을 보면 <표2-19> 와 같이 서울이 196건으로 59.71%를 차지하여 여전히 서울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제주도 19건, 부산광역시 14건, 대전광역시 13건, 경기도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2-19> 시도별 국제회의 개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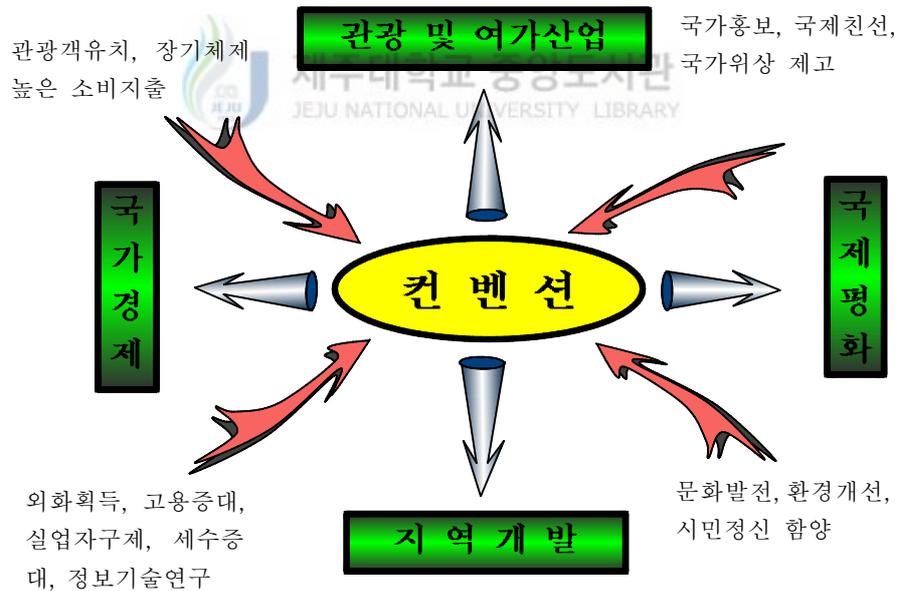
구 분	2001년 개최실적				2000 개최건수	1999 개최건수
	개최건수	구성비(%)	전 체 참가자수	외 국 인 참가자수		
계	292건	100	122,568명	40,625명	292건	287건
서울특별시	196	66.67	90,530	28,015	195	190
제주도	19	6.47	3,200	1,369	21	15
부산광역시	14	4.76	3,719	1,254	10	10
대전광역시	13	4.43	2,649	479	16	20
경기도	11	3.74	1,452	744	15	17
경상북도	10	3.40	4,065	2,409	11	11
강원도	7	2.38	1,607	877	4	8
인천광역시	6	2.04	832	238	3	3
충청북도	4	1.36	769	457	1	2
울산광역시	3	1.02	643	179	-	-
전라북도	3	1.02	3,452	332	3	1
충청남도	2	0.68	460	80	3	-
경상남도	2	0.68	834	71	1	3
대구광역시	2	0.68	8,076	4,011	4	4
광주광역시	1	0.34	180	100	3	2
전라남도	1	0.34	100	10	2	1

자료 : 2001국제회의 개최현황, 한국관광공사

제 2 절 컨벤션산업의 파급효과

컨벤션산업의 효과, 즉 국제회의의 개최와 관련산업의 진흥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는 개최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 같은 결과를 컨벤션산업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컨벤션산업의 효과는 관련산업부문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2차·3차 그리고 다른 산업부문에 파급되어 연쇄효과를 유발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컨벤션산업의 파급효과(Positive Effect)의 개념이다.²⁵⁾ 특히, 컨벤션은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으로 불리어지고 참가자가 외국의 여론 주도층이어서 국가 이미지 제고에 한몫을 할뿐만 아니라, 체제기간이 길고 소비수준이 높아 외화획득에 유리하다는 파생효과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현대식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건립비용보다는 컨벤션 유치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컨벤션의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²⁶⁾ 컨벤션을 개최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를 다음 <그림 2-1> 과 같은 Model로 보충할 수 있다.

<그림 2-1> 컨벤션산업의 효과



자 료 : 김병문·김현지, 국제관광론, 1999, p. 86.

25) 이장춘·박창수, 『국제회의론』, 도서출판 대왕사, 2001, p. 171.

26) 김대현, “한국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발전적 전략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 16.

컨벤션산업의 파급효과에는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정치·외교적 효과이다.

국제회의 참가자들은 만남과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다른 참가자들의 사회적·문화적·언어적 차이 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및 문화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오해와 왜곡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최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이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전반적인 특성을 알리고 이해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국제회의 참가자는 개최국의 이러한 특성과 자국의 문화와의 다양한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국가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국제회의가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정치·외교적 효과를 갖기 때문에 국제회의의 개최국은 그 효과의 중심에 서 있는 격이 된다. 즉 이러한 효과를 준비하는 국가로서 이미지와 위상이 제고될 수 있으며, 그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고, 국제회의의 준비능력은 개최지의 사회·문화의 잠재능력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정치·외교적인 역량과 발언권이 강화되는 또 다른 효과도 있다.²⁷⁾

둘째, 경제적 효과이다.

컨벤션의 개최 및 컨벤션산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중 현재까지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며,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이다.²⁸⁾ 국제회의의 개최 및 국제회의산업 진흥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는 국제회의 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부문에 대한 파급효과(spread/stimulating effect)와 연쇄효과(linkage effect)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참가자의 겸 목적 관광소비지출행위는 순 목적의 국제관광객에 의한 경제적 효과와 유사하지만,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회의 참가자들의 소비지출은 순 목적의 관광객에 비해 더 높고 체제기간도 길다. 따라서 대규모 국제회의의 개최는 승수 및 산업

27) 이장춘·박창수, 전게서, pp. 172~173.

28) Bradley M. Braun,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Conventions : The Case of Orlando, Florida", Journal of Travel Research, (winter 1992). pp. 32~37.

연관 효과가 일반관광부문보다 더 크다.

한국관광연구원의 1997년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국제회의 참가자의 평균 체재일수는 7.4일로 일반관광객의 평균체재일수 5.2일보다 많고, 평균 소비액도 일반관광객의 1,064달러보다 3배 이상인 1인당 3,285달러 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⁹⁾ 그리고 개최국의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Colin Clark에 의하면 산업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분류하고 전체산업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시하여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경험의 법칙”에 따라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그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회의산업은 국가의 산업구조의 개선, 즉 3차 산업중심의 구조로 변동하기 위한 중요한 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국제회의산업은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적용한 시설업, 그리고 국제회의 기획·운영·관리는 21세기에 이르러 정보관련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역동적인 흐름이 이루어지는 결절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보산업의 발달은 이러한 효과를 더욱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³⁰⁾

경제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컨벤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기준은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³¹⁾을 활용하여 승수(乘數)를 도출하고 있는데, 한국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제주도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1996.12)’와 문화관광부에서 수립한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1999.1)’에서도 산업연관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컨벤션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수화하고 있다. 산업연관분석과 한국관광연구원이 적용하고 있는 계산방식을 요약하면 다음 <표2-20>과 같다.

29) 한국관광연구원, 『1997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7, p. 100.

30) 이장춘·박창수, 전계서, pp. 173~174.

31) 산업연관분석은 레온티에프가 1940년대 초에 정립한 것으로 산업부문별 투입구조가 일정기간 안정적이라는 가정하에 최종수요의 변동이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직·간접 및 유발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분석기법으로 산업구조 변화분석과 경제의 예측 및 계획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

〈표2-20〉 컨벤션산업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벤션산업의 제반 승수 - 생산유발계수 1.34, 소득유발계수 0.25, 고용유발계수 0.017, 부가가치유발계수 0.41, 세입유발계수 0.0335 • 참가자 지출액 - 1995년 국제회의 소비지출조사 외국인 1인당 소비액 \$3,280의 80% 적용 • 내·외국인 지출액 비율 - 1 : 4적용(내국인 1인당 \$656, 외국인 1인당 \$2,624) • 내·외국인 참가비율 - 7 : 3 적용 • 참가자·주최측 지출액 비율 - 7 : 3 적용 • 직접생산효과 - 참가자 지출액 + 주최측 지출액 • 지역총생산 파급효과 - 직접 소비총액 × 생산유발계수(1.34) • 소득창출효과 - 생산유발액 × 소득유발계수(0.25) • 부가가치 창출효과 - 생산유발액 × 부가가치유발계수(0.41) • 지역고용 유발효과 - 생산유발액 × 고용유발계수(0.017) (고용창출효과 - 지역고용 유발효과 / \$833.33(백만원/人)) • 지방세수 파급효과 - 세입유발계수(조세 부담율×생산유발계수) × 참가자지출액
--

자료 : 한국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제주도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1996.12)와 문화관광부에서 수립한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1999.1)에서 산업연관분석에 근거한 적용 기준을 필자가 요약한 것임

이상과 같은 기준과 계산방식은 문화관광부도 적용하고 있는데 컨벤션 개최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예시를 들어 분석해보고자 한다.³²⁾

〈표2-21〉과 같이 2000명이 참가하는 국제회의 개최 시 직접생산효과는 42억7천만원이고, 지역총생산파급효과는 57억2천 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총 경제유발효과는 140억원 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참가자 및 주최측 지출액 산출 - 한국관광연구원 기준 적용

구 분	계	내 국 인	외 국 인	비 고
참 가 자	2,000명	1,400명	600명	
참가자 지출액	1인당	\$ 656	\$ 2,624	
	총 액	\$ 2,492,800	\$ 918,400	\$ 1,574,400
주최측 지출액	\$ 1,068,343(1,282,011천원)			

〈표2-21〉 컨벤션개최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예시)

구 분		미 화(\$)	한 화(천₩)	비 고
직접생산효과	A	3,561,143	4,273,371	환율:1\$ = ₩1,200
총생산파급효과	B	4,771,931	5,726,318	B=A×1.34
소득창출효과	C	1,192,983	1,431,579	C=B×0.25
부가가치창출효과	D	1,956,492	2,347,790	D=B×0.41
지방세수파급효과	E	119,298	143,158	E=B×0.025
고용유발효과	F	81,123	97,347	F=B×0.017
고용창출효과	G	97명	97명	G=F/833.33\$
총 경제유발효과		11,682,970	14,019,564	고용창출효과 제외

셋째, 사회·문화적 효과이다.

국제회의산업의 발전으로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효과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세방화(glocalization)이다. 국제회의 개최지는 국제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보거점기능과 교통결절지로서의 기능 등 국토공간에 있어서 균형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지성을 갖춘 곳이 선정되어지게 되고 준비과정에서도 개발되게 된다. 현대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도시경쟁력으로 모아지고 있으며, 도시의 경쟁력은 국제화·정보화·지방화·다원화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회의 개최도시는 국제교류의 장으로서 국제화와 다원화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세방화의 거점지역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³³⁾

넷째, 심리적 효과이다.

국제회의에 개최지 및 각국 대표들은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평화를 생산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는 심리적 안정감과 자랑스러운 마음은 향후 새로운 국제회의 수요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회의 개최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사회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만족감은 그 지역사회를 보다 풍요롭게 하고 지역주민의 사회적 참여를 극대화하는 심리적 효과를 유발한다.³⁴⁾

33) 이장춘·박창수, 전계서, pp. 175~176.

34) 이장춘·박창수, 상계서, p. 177.

다섯째, 교육적 효과이다.

국제회의 산업은 전문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제회의의 기획사, 통·번역요원, 전시박람회전문가, 이벤트전문가 등 국제회의의 기획·운영·관리에 직접 관계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IT산업분야·인쇄·출판·마케팅 등 관련분야의 전문화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규모와 빈도면에서 국제회의 개최건수가 증가하게 되고, 국제회의산업이 진흥되게 되면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국제회의 관련전문가의 교육을 통한 양성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제회의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이어지게 되며, 국제회의산업과 관련산업부문의 제고라는 또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³⁵⁾

여섯째, 환경적 효과이다.

국제회의 개최지의 환경효과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지구촌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모임이든 조직화된 모임에서는 1차적 가치생산을 친 환경 지향적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청정한 공기·맑은 물·푸르름이 함께 존재하는 장소가 국제회의 입지로서 각광받을 것이다. 국제회의가 결과적으로 친 환경산업으로 그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다. 비무장지대에 만국평화마을을 조성하고 평화생산공장을 세워 전세계인의 평화와 행복을 원하는 각종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비무장지대의 청정한 환경과 냉전에서 평화로 전이되는 이미지가 함께 접목된 지역이기 때문일 것이다.³⁶⁾

일곱째, 관광 산업적 효과이다.

컨벤션의 특징은 화합을 목적으로 한 다국적 다수인의 이동이란 점에서 인간이 일상생활을 일시적으로 벗어나 타국을 여행하는 국제관광객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외래객은 국제관광객이며, 따라서 컨벤션의 효용은 국제관광의 인바운드(inbound)효과로 간주될 수 있다. 국제회의산업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가능하므로 관광비수기 타개효과, 대규모 관광객 유입의 효과, 세계 전역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객 지역편중현상 해소효과, 2~3년 전서부터 장기예약을 하게되어 관광시장의 대외 홍보효과를 가져오게 된다.³⁷⁾

35) 이장춘·박창수, 상계서, pp. 177~178.

36) 이장춘·박창수, 상계서, p. 178.

37) 장윤선, 전계논문, p. 22~24.

제 3 절 연구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컨벤션산업의 육성이 시대적·지역적으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상황 속에서 컨벤션산업에 관한 공무원과 관련업계 의식의 실태와 육성정책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지역에 걸 맞는 컨벤션산업의 육성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석대상변수를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리적 측면, 지원적 측면, 환경적 측면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관리적 측면에서는 관리조직·관리인력·운영능력을 대상변수로 하였다. 지원적 측면에서는 법과 제도·지원시스템·재정지원의 문제를 대상변수로 하였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대외여건·대내여건·시설여건을 대상변수로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변수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비되어야 할 조건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설정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분석의 틀을 도표화하면<그림 2-2>와 같다.

<그림2-2> 연구 분석의 틀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분석대상 변수	
관 리 적 측 면	• 관리조직 · 관리인력 · 운영능력
지 원 적 측 면	• 법과제도 · 지원시스템 · 재정지원
환 경 적 측 면	• 대외여건 · 대내여건 · 시설여건

第 Ⅲ 章 濟州地域 컨벤션産業의 實態 및 調查設計

제1절 컨벤션산업의 실태

1. 국제회의 시설 및 회의개최 실태

1) 국제회의 시설 현황

우리나라는 전문적인 대규모 컨벤션센터가 많지 않아서 주로 특급호텔 연회장에서 컨벤션이 개최되고 있으나 행사전문시설을 갖춘 호텔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 밖의 행사는 규모나 성격에 따라 기업체 회의장, 전시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이 회의장으로 이용되고 있다.³⁸⁾ 그러나 최근 서울 COEX(2000.5.16), 대구 EXCO DAEGU(2001.4.19), 부산 BEXCO(2001.9.13) 등이 개관되었으며, 제주지역에도 전문회의시설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개관 (2003.3.22)되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주지역에 국제회의가 가능한 시설은 ICC JEJU 외에 10개의 호텔 회의장이 있는데 500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호텔 5개소(하얏트호텔, 서귀포 칼호텔, 크라운 프라자호텔, 그린빌라호텔, 퍼시픽호텔)와 5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 5개소(롯데호텔, 신라호텔, 그랜드호텔, 오리엔탈호텔, 제주 칼호텔)가 있다. 이러한 규모는 서울지역 43개소에 이어 부산지역과 같은 규모로서 제주지역은 국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양호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제회의 개최현황

제주지역이 국제적인 컨벤션 개최지로서의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1991년 한·소 정상회담 개최 시 고르바초프 구 소련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³⁹⁾ 그 이후 <표3-1>과 같이 중국, 미국, 일본, 벨기에 등 2001년 말까지 11개국 정상들이 제주를 찾아 정상회담 또는 시찰을 하였고, 1995년 세계 28개국 12,000명이 참가한 「JCI 아·태 대회」, 2000년 세계 32개국

38) 강숙영, “제주지역주민의 컨벤션산업 영향인식과 매체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 50.

39) 강숙영, 전계논문, p. 52.

360명이 참가한 「삼성코리아오픈 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 제주세계섬문화축제, 2002월드컵 등 대규모 이벤트가 개최되면서 컨벤션 개최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표3-1〉 세계정상 방문 현황(1991~2001. 12월)

기 간	성 명	직 위	비고
1991. 4.19~ 4.20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	현직
1991.10.16~10.19	보드앵 국왕 화비올라 왕비	벨기에 국왕 및 왕비	현직
1995. 5.17~ 5.18	나라즈바예프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	현직
1995.11.16~11.17	강 택 민	중국 국가주석	현직
1996. 4.16~ 4.17	클 린 턴	미국 대통령	현직
1996. 6.22~ 6.23	하시모토류따로	일본 총리	현직
1997. 6. 5~ 6. 6	아스카르아카예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현직
1999.10.23~10.24	오브치 게이조	일본 총리	현직
2000. 6.21~ 6.22	부 시	전 미국 대통령	전직
2000. 6.20~ 6.22	라 모 스	전 필리핀 대통령	전직
2000. 9.30~10. 3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	전직
2000.11.17~11.19	Kessai Note	마셜아일랜드 대통령	현직
2001. 2.14~ 2.15	바가반디	몽골 대통령	현직

자료 : 제주도 내부자료

2001년도를 기준으로 컨벤션개최 현황을 분석해 볼 때 개최건수 면에서 서울지역이 전체 556건 중 332건으로써 5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순위가 부산광역시이고 제주지역은 〈표3-2〉와 같이 27건으로 3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주지역이 우리 나라에서 수도 서울에 이어 컨벤션 개최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이다. 특히 전시회분야가 단 1건도 없는데 비해서 순수국제회의 및 기타 국제행사분야는 그 전망이 밝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가 스포츠산업과를 신설하여 국제스포츠대회를 많이 유치하여 스포

츠의 메카로 성장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은 컨벤션의 육성에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표3-2〉 제주지역 국제회의 개최현황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전 국	계	428건	495건	505건	544건	556건
	국제회의	248	267	287	292	294
	참가지수 (외국인)		82,533 (22,725)	129,059 (34,038)	134,356 (33,562)	122,568 (40,625)
	전 시 회	104	93	112	117	128
	관람자수	5,336,571	7,721,692	7,918,807	8,609,892	12,570,584
	기 타 참가지수	76	135	106	135	134
		11,923,003	14,938,393	14,938,393	26,117,271	
제 주	계		30건	21건	31건	27건
	국제회의		20	15	21	19
	참가지수 (외국인)		2,210 (997)	2,205 (1,420)	3,176 (1,271)	3,200 (1,369)
	전 시 회		-	-	1	-
	관람자수					
	기 타 참가지수		10	6	9	8
		200,778	332,590	311,518	706,099	
제주순위(시도·건수기준)			②	⑥	②	③

자료 : 국제회의의 개최현황, 한국관광공사, 필자 재작성

주1) 본 통계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국제행사 개최단체, 호텔, 전시장, 국제회의 기획업체, 대학, 신문사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를 조사 집계한 것임.

주2) 본 통계는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 중 참가자가 3개국이상이며 외국인 참가자수가 10명 이상인 순수 국제회의, 전시회, 기타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임.

컨벤션 개최시기를 분석해보면, 제주지역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래관광객이 450만 명 이상 찾아오는 지역으로서 제주도 입장에서는 가급적 관광비수기에 컨벤션이 유치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관광상품은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컨벤션은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산업이고 다른 관광에 비해 계절성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관광비수기 타개책으로 고려되고 있다⁴⁰⁾.

2001년도의 경우 월별 컨벤션 개최건수를 보면 <표3-3>과 같이 6월→5월→2월, 3월, 4월, 8월 11월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관광객 내도 인원수를 보면 8월→4월→5월→10월→7월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관광성수기와 비수기를 알 수 있으므로 컨벤션의 유치는 가급적 관광비수기인 1~3월, 11~12월에 유치하여야 가격 경쟁력이 있으므로 개최지의 입장에서도 참가자의 입장에서도 서로 좋은 Win-Win Play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3-3> 월별 제주지역 컨벤션개최건수 · 내도 관광객 현황

구 분	컨벤션 개최건수(2001년도)				2002년도 내도 관광객 수(천명)		
	계(순위)	국제회의	전 시 회	기 타	계(순위)	내국인	외국인
계	27	19	-	8	4,515	4,226	289
1 월	1	-	-	1	332	322	10
2 월	2	1	-	1	286	267	19
3 월	2	2	-	-	350	332	18
4 월	2	2	-	-	464(②)	439	25
5 월	5(②)	4	-	1	424(③)	396	28
6 월	7(①)	5	-	2	268	238	30
7 월	1	1	-	-	403(⑤)	379	24
8 월	2	1	-	1	554(①)	525	29
9 월	2	1	-	1	317	289	28
10 월	1	1	-	-	420(④)	384	36
11 월	2	1	-	1	394	370	24
12 월	-	-	-	-	303	285	18

자료 : 2001 국제회의 개최현황(한국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내부자료, 필자 재작성

2001년 제주지역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19건을 기준으로 개최장소를 확인해보면 <표3-4>와 같이 대부분 호텔회의실에서 개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 Edward Inskeep, "Tourism Planning", (New York : VNR, 1991), p. 288.

〈표3-4〉2001년 제주개최 컨벤션내역별 현황

구분	기간	명칭	장소	주최	참가자		
					참가국	외국인	전체
국제회의	2.13~15	공개키 암호시스템의 이론 및 응용 국제학술대회	제주신라호텔	한국정보통신대학원	26	45	135
	3.06~09	국제LNG수입자그룹 회의	제주신라호텔	한국가스공사	5	35	47
	3.18~22	폴리미래(주)마케팅 회의	제주그랜드호텔	폴리미래(주)	5	27	41
	4.05~07	제1차 아시아태평양양산화관 운동학 PG코스	제주롯데호텔	대한소화관운동학회	16	63	261
	4.24~29	2001한일 결정성장 세미나	홀리데이플라자호텔	한국결정성장학회	7	40	160
	5.20~22	IFAC제주워크샵	제주그랜드호텔	(주)BMD	3	17	70
	5.20~26	날코코리아 한일 영업관련 세미나	제주그랜드호텔	(주)날코코리아	4	11	27
	5.2~25	ISO/TC204WG3	제주롯데호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14	25	40
	5.31~6.2	KOTAC작용소이론 국제학술대회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3	46	106
	6.04~09	제6차 공정시스템의 동특성 및 제어심포지움	제주신라호텔	한국화학공학회	29	157	306
	6.08~09	화학과정 자동제어 워크샵	제주신라호텔	포항공대 제어자동화학회	25	130	200
	6.11~15	제12회 태양광발전 국제회의	제주롯데호텔	태양광발전회 조직위	26	314	480
	6.12~15	제주 세계섬문화 국제회의	제주칼호텔	제주세계섬문화조직위	10	40	240
	6.15-17	제주 평화포럼	제주신라호텔	제주도	9	47	435
	7.19~22	제5차 세계항공교통학회	제주칼호텔	한국항공대학교	41	85	231
	8.29~9.1	아시아태평양 사장단회의	제주신라호텔	한국통신	11	36	56
10.22~27	국제금융인 세미나	제주롯데호텔	한국산업은행	9	18	18	
11.8~10	제2차 한일혈관외과 합동학술대회 및 국제맥관연맹회	제주롯데호텔	대한혈관외과학회	9	193	302	

구분	기간	명칭	장소	주최	참가자		
					참가국	외국인	전체
기타 행사	1.12~20	한라산 눈꽃 축제	한라산 어리목	제주도	5	1,800	83,000
	2.03~04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애월읍 새별오름	북제주군	-	1,420	195,000
	3.19~17	제주 세계섬문화축제	제주일원	제주세계섬 문화조직위	28	25,000	263,414
	6.03~03	제주 마라톤축제	제주일원	제주도관광 협회	11	496	4,420
	6.09~10	제주 국제철인3종 경기대회	중문관광 단지	대한트라이 애슬론연맹	16	364	668
	8.10~20	제주국제관악제	제주해변 공연장	제주시	14	180	1,939
	9.20~24	제7회 서귀포 칠십리 국제 바다축제	천지연 광장	서귀포시	-	3,200	157,000
	11.01~07	제15회 세계태권도대회	제주한라 체육관	세계태권도 연맹	90	642	658

자료 : 2001국제회의 개최현황, 한국관광공사

3) 항공노선 취항현황

제주지역 컨벤션 참가자의 접근성에 관한 분석을 위하여 항공노선의 취항실태를 살펴봐야 한다.

제주지역은 섬이기 때문에 연륙교통 수단이 항공편과 선박편일 수밖에 없다. 2000년도의 경우 다른 지방과의 연륙교통 이용현황(도민포함)을 보면 <표3-5>와 같이 항공편 92.8%, 선박편 7.2%로서 관광객이나 도민들의 연륙교통 이용수단은 주로 항공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⁴¹⁾

<표3-5> 연륙교통 이용현황

(단위 : 천명)

구분	총인원	항 공 편				선 박 편	
		소계	국내	국제	비율(%)	인원(명)	비율(%)
계	9,656	8,958	8,627	331	92.8	698	7.2
입항	4,823	4,467	4,298	169	92.6	356	7.4
출항	4,833	4,491	4,329	162	92.9	360	7.2

자료 : 1999~2000 도정백서, 제주도, 2001

41) 제주도(정책기획관실), 『1999~2000 도정백서』, 2001, p. 583.

연륙교통 수송능력은 2003년 현재 시점에서 편도·정기편·1일 기준으로 볼 때, <표3-6>과 같이 항공편은 국제선 7개 노선·4회·697명, 국내선 14개 노선·100회·21,117명, 여객선 국내 7개 노선·3,090명 등 평균 20,148명이 제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항공노선은 국제선인 경우 오사카·나고야·도쿄·후쿠오카·베이징·상해·방콕 등 3개국·7개 노선이 취항하고 있으며, 국내선인 경우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포항·청주·군산·목포·진주·여수·울산·예천·원주 등 14노선에 취항하고 있다.

선박인 경우는 부산·목포·완도·인천·여수·녹동·통영 등 7개항에 취항하고 있다.

<표3-6> 연륙교통 수송능력 현황

평 균	항 공			선 박
	계	국 제 선	국 내 선	
20,148명	104회 21,814명	4회 697명	100회 21,117명	3,090명

자 료 : 주요관광행정현황, 제주도(관광진흥과), 2003

4) 숙박시설 현황

제주지역의 숙박시설의 실태를 보면, <표3-7>과 같이 관광숙박업인 경우 59개소·7,131실을 확보하고 있고, 일반호텔 및 여관 등을 모두 합하면 662개소·18,862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규모는 제주도에 내도 하는 관광객을 450만으로 보면 1일 평균 내도 인원 12,300명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규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호텔식사의 질적인 문제, 객실의 청결 문제, 객실가격의 문제, 종사원의 서비스 수준 등 숙박시설의 하위요소가 컨벤션 유치에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표3-7〉 제주지역 숙박시설 현황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계	662	18,862	430	11,604	121	4,672	73	1,505	38	1,081	
관 광 숙박업	소 계	59	7,131	27	3,315	18	2,719	10	599	4	4988
	종합관광호텔	42	5,549	25	3,148	13	2,136	3	227	1	38
	휴양콘도미니엄	13	1,344	-	-	3	512	7	372	3	460
	한국 전통호텔	1	30	-	-	1	30	-	-	-	-
	일반 관광호텔	3	208	2	167	1	41	-	-	-	-
	가족호텔	-	-	-	-	-	-	-	-	-	-
일 반 호 텔	72	3,043	61	2,679	5	190	6	174	-	-	
여 관	403	7,358	248	4,557	78	1,603	47	645	30	553	
농 원 여 관	1	8	-	-	-	-	-	-	1	8	
여 인 숙	127	1,322	94	1,053	20	160	10	87	3	22	

자료 : 주요관광행정현황, 제주도(관광진흥과), 2003

2.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실태

1) 컨벤션센터 건립의 필요성

21세기 동북아 최고의 관광휴양지 개발과 제주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는 우리 나라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도지에서 맛 볼 수 없는 자연 친 화적인 숙박시설 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충될 예정이어서 각종 국제회의 개최의 최적지 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 관광 행태의 새로운 변화로 컨벤션과 같이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러일으킬 신규 개발사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건립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향후 제주도가 관광·쇼핑·회의중심의 국제관광지 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회의산업의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인 컨벤션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되어 진 것이다.⁴²⁾

2) 컨벤션센터 건립배경

컨벤션센터 건립은 1994년 확정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에 대규모 국제회의시설 확충 계획이 포함되어 수립되어 있으며, 1996년 5월 ASEM 유치활동시 타 시도와 유치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규모 컨벤션시설이 없어 ASEM 제주유치에 실패하였고 이를 계기로 1996년 8월 제주도승격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도지사가 컨벤션센터 건립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한국관광연구원을 통해 컨

42) 제주도(정책기획관실), 『2001도정백서』, pp. 540~541.

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도내외 및 해외도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996년 11월 당시 내무부에 지방 투·융자사업 및 지방채 발행승인, 1996년 12월에는 도시군 출자예산을 1997년도 예산에 확보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12월 제주지구추진위원회 결성을 계기로 도쿄, 오사카, 서울, 부산을 비롯한 15개 추진·지원위원회를 결성하여 범도민적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1997년 3월 추진위원 합동회의 및 발기인 총회('97.3.7)와 발기인 공동대표회의('97.3.21)를 통해 본격적인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97.5~7월 도민 주 공모를 통해 1997년 8월 창립총회와 법인 등기를 마침으로서 실질적인 주식회사 창립을 하게되면서부터 실질적인 건립의 시작이 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컨벤션센터 건립개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2단계 동부지역내 부지 16,600평에 연건평 18,793평의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컨퍼런스 홀 기준으로 3,500명(극장식 최대수용인원 4,3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총 사업비 1,806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였다.

건립의 기본방향은 컨벤션에 참가한 사람들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과의 열린 커뮤니케이션과 상호관계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제주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 디자인과 제주도의 따사로운 햇볕과 풍경이 자유롭게 조망되어 건물 내에서도 계절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여 참가한 사람들이 도시생활을 탈피해 자연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제주도를 형상화하고 입면은 제주도의 자연을 대변할 수 있는 한라산을 유추한 형태로 계획하였으며, 제주의 자연환경에 대한 매력과 풍치를 최대한 흡수토록 하며, 그 지역의 기존질서를 보호하는 디자인을 통해 제주의 전통과 자연을 반영하여 환경과 장소에 역행하지 않는 계획을 전제로 하였다.

컨퍼런스 홀은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큰 규모의 컨벤션센터 중의 하나로 장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시설로서의 개념을 도입하되 시설 사용 면에서는 시설의 이용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IBS)을 도입하여 정보통신(TC), 사무자동화(OA), 빌딩자동화(BA), 건축환경 등 4대 요소를 통합해 최적의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첨단 정보처리시스템을 갖추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도록 계획하였다.

시설내용을 보면, 지하층에는 판매 및 전시시설, 지상 층에는 회의시설 및 식음료 시설을 중심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표3-8> 과같이 탐라 홀

3,500석(2분가용), 한라 홀 500석(2분가용), 삼다 홀 200석(2분가용), 기타 2분가용 가능한 중·소 회의실 8실과 3분가용 가능한 이벤트 홀 등 총 17개 회의실이 있으며, 식·음료 등 상업시설 및 실내 주차장과 썬큰 가든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3-8〉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시설현황

구 분	시설면적		실 면 적		수용인원(명)			
	m ²	평	m ²	평	교실식	극장식	연회식	
탐 라 홀	A+B	4,597	1,391	4,061	1,229	3,500	4,300	2,000
	A(고정석)	2,581	781	2,294	694	1,500	1,500	-
	B(평탄석)	2,016	610	1,768	535	2,000	2,800	1,400
한 라 홀	A+B	812	246	643	194	500	660	410
	A	424	128	350	106	270	360	220
	B	388	117	293	89	230	300	190
삼 다 홀	A+B	398	120	276	83	200	300	180
	A	197	60	136	41	100	150	90
	B	201	61	140	42	100	150	90
소회의실	101	113	34	109	33	80	110	70
	101A	57	17	55	17	40	55	35
	101B	56	17	54	16	40	55	35
	102	113	34	109	33	80	110	70
	103	143	43	125	38	100	130	80
	103A	69	21	63	19	50	65	40
	103B	74	22	62	19	50	65	40
	104	61	19	56	17	45	60	40
	201	140	42	128	38	100	130	80
	201A	70	21	64	19	50	65	40
	201B	70	21	64	19	50	65	40
	202	216	65	194	58	150	200	120
	202A	108	33	97	29	75	100	60
202B	108	32	97	29	75	100	60	
이벤트홀	A+B+C	2,504	757	2,394	724	1,830	2,450	1,510
	A	808	245	772	233	590	790	490
	B	848	256	811	245	620	830	510
	C	848	256	811	246	620	830	510

자료 : ICC JEJU(컨벤션 홍보물)

4)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과정

컨벤션센터의 본격적인 건립사업은 국제지명 현상설계에서의 최종 당선작인 일본의 Nihon Sekkei사의 개념설계 작품을 바탕으로 1998. 3. 30 기공식을 가졌으며, 1998. 8. 10 계획설계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기 시작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계획설

계를 발전시킬 기본설계 계약을 국내 설계업체인 천일건축사와 체결하여 설계안을 확정 시키기 위하여 작업을 진행해 오던 중 IMF 관리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증자실적이 당초 목표에 크게 미달되었고, 또한 적금 청약자 들의 잇단 해약 등으로 인하여 자본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공사자금 조달계획의 수정, 중앙정부에의 지원요청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시설규모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1998.9.25 대통령 제주 방문시 국가와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컨벤션 센터의 사업규모·기간을 재조정 추진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1999.2.11 이사회에서 전문가 검증을 토대로 한 사업규모를 당초 5,000석에서 3,500석으로 조정하고 준공기한을 당초 2000. 8월에서 2002. 12월로 변경 결정하였으며, 1999.12.23 (주)대우건설 외 6개사에 건립 신축공사를 의뢰하여 건립 도민 보고회 및 본 공사를 착공하였다. 2000.12.27 컨벤션 단일시설에서 복합기능을 갖춘 관광종합센터로 전환(컨벤션, 관광교육, 섬 문화교류, 마케팅, 벤처지원 기능 등)하므로써 국고지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또한 준공 시 연중 상설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⁴³⁾ 한편, 2003. 3월 현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기로 유치 확정된 국제회의는 <표3-9>와 같이 총 15건으로서 2003년 4건, 2004년 6건, 2005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2008년 1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9> 국제회의 유치현황 (2003. 3월 현재)

시 기	회 의 명	규 모
2003	4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이동체공학 학술회의(IEEE VTC)	1,000
	8 국제소음진동학회 총회(Inter-Noise 2003)	700
	10 제주평화포럼	300
	11 기술정보시스템 총회(GPS Workshop)	1,000
2004	4 아·태평양 여행자협회 연차총회(PATA)	2,000
	5 2004년 아시아개발은행총회(ADB)	3,500
	6 국제광생물학회총회(The 8th AIP)	1,200
	9 아·태평양 류마티스학회총회(APLAR)	2,500
	10 국제음성언어학술대회(ICSLP)	1,500
	10 아시아·태평양 파괴강도 학술대회(APCFS)	400
2005	8 급성응고-준안정 재료 국제학회(RQ12)	300
	11 국제면역학회 총회(ICSC)	1,200
2006	3 아시아·태평양 동맥경화 학회총회(APSAVD)	3,000
2007	5 국제지방자치단체·자매도시 연합총회(IULA-FMCU)	2,500
2008	10 국제열대의학 및 말라리아 학회 총회(ICTMM)	1,600

자료 : 제주도정(다이내믹 제주, 2003. 3. 5일자)

43) 제주도(정책기획관실), 『2001도정백서』, p. 545.

3. 제주지역 컨벤션산업의 여건분석

1) 강점 및 약점

황희곤 교수의 발표자료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차별화 방안」에 의하면 제주지역 컨벤션산업의 여건분석(SWOT분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⁴⁴⁾

(1) 강점(Strengths)

첫째,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의 중심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2시간 비행거리에 인구 5백만 이상 도시가 18개 중 5백만에서 1천만 명의 도시가 13개, 1천만 명 이상 도시가 5개가 분포해 있어서 동아시아의 Hub적 위치를 자치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⁴⁵⁾

둘째,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경관, 청정환경으로 관광·휴양지의 매력성을 갖고 있다. 또한 4계절이 뚜렷하고 온난성 기후조건, 해양과 산악이 어우러진 자연환경, 리조트로서의 쾌적성, 풍부한 배후도시라는 점 등 천혜의 자연조건과 휴양관광지로서의 매력성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제주도는 풍부한 회의시설 및 숙박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500~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수의 호텔 회의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최고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특급호텔·콘도·펜션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2) 약점(Weaknesses)

첫째, 제주도는 대륙과 떨어져 있어서 지리적인 접근성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배후시장을 연결하는 국제항공노선이 미약하기 때문에 성수기 예약이 곤란하고 외래 관광객도 일본, 중국, 홍콩 등 인접 지역이 8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규모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기본시설도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에 있다.

둘째, 관광상품의 다양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경쟁대상 국제관광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수기가 길다는 점(년 약 180일)이 있고, 체험관광·야간관광 등

44) 황희곤(한림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차별화 방안』, 2001 제주국제회의 설명회(2001.11.29~30)

45) 인구 500~1,000만명인 도시(13개) : 심양, 대련, 연대, 청도, 제남, 남통, 남경, 소주, 항주, 영파, 온주, 타이페이, 오사카

인구 1,000만명 이상인 도시(5개) : 베이징, 톈진, 상하이, 도쿄, 서울

상품의 다양성 부족,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징적인 상품개발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외래관광객 28만 명(7%수준)에 관광수입 중 22%를 차지하고 있다는 수치는 싱가포르(외국인 관광객 770만 명)에 비하면 내국인 위주의 “저수익 다량판매형” 관광지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컨퍼런스 위주의 단순시설 만으로서는 독자운영이 곤란한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전시사업 등을 통한 독자적 수지균형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컨퍼런스 위주의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익모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적은 인구규모, 경제규모의 취약성으로 고급인력 유치의 어려움, 외국어 소통이 곤란한 것들도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넷째, 대외적 지명도가 높은 국제적 이벤트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제적 컨벤션 명소로서의 이미지 정립이 COEX(2000 ASEM, 제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등)나 BEXCO(부산국제영화제, 월드컵 조추첨 행사 등)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 기회 및 위협요인

황 희 곤 교수의 발표자료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차별화 방안」에 의하면 제주지역 컨벤션 산업의 여건분석(SWOT분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주장하고 있다

(1) 기회요인(Opportunities)

첫째,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의 확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제정·시행을 들 수 있다. 2001년 11월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및 7대 선도 프로젝트사업⁴⁶⁾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2002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큰 틀이 마련되었다.

둘째,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및 세계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화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사회간접시설 확충, 제주도민 의식의 선진화 등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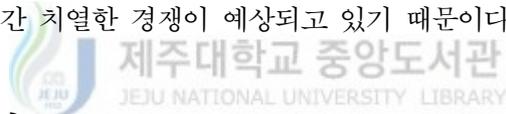
46) 7대 선도프로젝트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의 선도적·중추적 기능을 고려한 5개권역(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중앙권)의 1조 7000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①중문관광단지 확충 ②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③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④제주공항자유무역지역 개발 ⑤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⑥쇼핑 아울렛 ⑦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임.

셋째, 국제사회에서 아시아권 시장 및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인접국가인 거대한 중국이 WTO 가입, 올림픽 유치 등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중화권 국가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권의 관광 시장이 증대되고 있어 Resort형 컨벤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 위협요인(Threats)

첫째, 인접지역 컨벤션센터의 치열한 경쟁체제현상을 들 수 있다. 제주도과 여건이 비슷한 관광지로서 Resort형 컨벤션을 추구하고 있는 일본의 오키나와, 미야자키, 후쿠오카의 컨벤션 등과 하와이 컨벤션센터, 중국의 푸둥 지구 등 대외인지도가 높고 민관협력체제가 잘되어 있어서 후발주자인 제주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한 경쟁대상으로서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국내 경쟁대상 컨벤션센터의 등장이다. 국내에서도 부산, 대구 등 컨벤션센터가 개관·운영되면서 적극적인 컨벤션유치를 위한 마케팅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정되어 있는 국내 유치와 수요로 인하여 국내 컨벤션센터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 2 절 조사설계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및 방법

본 조사는 컨벤션산업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주지역의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올바른 정책적 육성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도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관광 및 컨벤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주도관광협회 및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직원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집 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위 조사만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하여 컨벤션분야 전문가인 대학교수의 의견과 언론의 시각 등을 간접조사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행하고자 문헌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사분석 요소(대상)를 컨벤션 개최와 관련한 관리운영적 요소, 법과 제도적 측면의 지원적 요소, 컨벤션 목적지로서의 환경적 요소 등 3개 항목을 설정하였다.

2) 조사대상 및 표본의 구성

컨벤션산업 육성을 도민인식 분석을 위해 조사대상은 <표3-10>과 같이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북제주군청, 남제주군청 등 제주도내 5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00명과 제주도관광협회 소속직원 25명 및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속직원 25명 등 관광 및 국제회의 분야에 종사하는 회사원 50명을 대상으로 전체 35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회수된 335부 가운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300부(85.7%)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여건상 컨벤션센터 근무직원과 관광협회 직원은 전수를 조사하였지만 직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의 15.7%에 불과하여 공무원들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수집되었다. 근무기관별 분포는 재직공무원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여 지역별, 근무 기관별, 직능별, 재직 기간별로 고르게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3-10> 응답대상자의 특성별 구성현황

변 수 명		빈도(명)	비율(%)	
성 별	계	300	100.	
	남	215	71.7	
	여	85	28.3	
분 야	계	300	100.0	
	공 무 원	253	84.3	
	관 련 업 계	47	15.7	
관 련 업 계	계	47	100.0	
	근무처별			
	제주컨벤션센터	23	48.9	
제주도관광협회	24	51.1		
공 무 원	계	253	100.0	
	근무기관별	제 주 도 청	82	32.4
		제 주 시 청	63	24.9
		서 귀 포 시 청	34	13.4
		북 제 주 군 청	34	13.4
		남 제 주 군 청	40	15.8
	직 종 별	일 반 직	162	64.0
		전 문 직	19	7.5
		기 능 직	29	11.5
		별 정 직	12	4.8
		기 타	31	12.3
	재직기간	10 년 이 하	106	38.2
		10 ~ 20년	107	38.6
21 년 이 상		64	23.1	

전문적인 분야를 보강하기 위하여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최근 1년간 도내 5개 대학 컨벤션 및 관광관련학과 교수의 지상기고와 도내 3개 일간신문의 시각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설·특집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문화관광부·한국관광공사·제주도 및 ICC JEJU 등 컨벤션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관의 관계관 의견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표3-11>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3-11> 분석대상 언론 시각 및 전문가 의견 총괄표

구 분		분석 활용 대상(60건)				비 고
		계(건수)	사설	기획보도	취재보도	
지역언론 시각	제 민 일 보	14	4	1	9	최근1년이내
	제 주 일 보	14	4	1	9	"
	한 라 일 보	14	4	1	9	"
전문가 의견	대학교수(6명)	10	기고·시론·칼럼			도내5개대학
	한국관광공사(1명)	1	발표자료			
	ICC JEJU(2명)	5	기고·지상인터뷰			컨벤션임원
관련부서 의견	문화관광부(1명)	1	전화인터뷰			
	제주도(1명)	1	전화인터뷰			

자료 : 필자 작성

3) 조사기간



설문조사는 2003년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요원은 연구자가 직접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문가 의견 및 언론시각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내 3개 지방일간지의 보도내용 중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최근 1년간 보도내용에 대하여 2003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컨벤션에 관한 부분을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 설문지 구성

설문조사내용의 구성에 있어서는 <표3-12>와 같이 이론적 배경 및 컨벤션산업의 여건분석(SWOT)을 통하여 도출된 요인을 대상으로 향후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설문지를 연구의 도구로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항목은 컨벤션산업에 대한 제주지역 공무원 및 관련업계 종사원의 일반적 인식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항목은 제주지역 컨벤션 관리·운영적 측면에 대하여 총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항목은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적 측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항목은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대·내외적인 환경적 측면의 실태를 분석키 위하여 총 4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항목은 제주지역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육성전략을 탐색키 위하여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끝으로 본 설문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을 성별·연령·학력·직업·경력으로 구분하여 명목척도를 이용하여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3-12〉 설문지의 구성

설문항목	변수	문항수	비고
일반적인 사항	성별·연령·학력·직종·직급(직책)·재직기간·거주지	6	
I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일반적 인식	·실태인식·수용자세·발전전망	6	
II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적 측면	·관리조직·관리인력·운영능력	7	
III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적 측면	·제도·지원시스템·재정지원	4	
IV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적 측면	·대외여건·대내여건·시설여건	4	
V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제반전략 탐색	종합전략	5	

3. 자료분석 방법

설문에 대한 자료의 분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기법으로 빈도 분석과 교차분석 그리고 기술통계량을 산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조사분석 항목인 관리적 측면, 지원적 측면, 그리고 환경적 측면 각각에 대해서 지방 공무원들과 관련업계 종사원의 의견을 보고 그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의견과 관련업계 종사원의 의견으로 미흡한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의견과 언론의 시각을 중심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第Ⅳ章 濟州地域 컨벤션産業의 政策課題

제 1 절 관리적 측면에서의 정책과제

관리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문은 <표4-1>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운영 능력(77.5%)이 관리조직(8.1%)이나 관리인력(14.4%)에 우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직업별 구분 통계적인 유의성은 보이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공무원에서 더 깊게 나타나고 관련업계 종사원의 경우 관리인력의 비중이 공무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4-1>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적 측면

구 분		관리적 측면			전 체	
		관리조직	관리인력	운영능력		
구 분	공 무 원	빈도	6	11	74	91
		%	6.6%	12.1%	81.3%	100.0%
	관련업계	빈도	3	5	12	20
		%	15.0%	25.0%	60.0%	100.0%
전 체		빈도	9	16	86	111
		%	8.1%	14.4%	77.5%	100.0%
		$\chi^2 = 4.287, \quad df = 2, \quad Sig = .117$				

1. 컨벤션전담 행정조직 신설의 문제

1) 전담조직 신설에 관한 인식과 태도

컨벤션 행정체계 구축을 위하여는 우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전담조직이란 컨벤션산업의 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기능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문결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제주도청 행정조직상에 컨벤션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표4-2>와 같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 42.1%,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42.5%로 나타나고있으며 설치할 필요가 없다 4.7%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2〉 컨벤션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제주도 조직내부)

구 분			컨벤션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					전 체
			반드시 설 치해야함	설치해도되고 안해도 됨	설치할 필 요가 없음	잘 모르겠음	기 타	
구분	공 무 원	빈도	102	115	10	21	4	252
		%	40.5%	45.6%	4.0%	8.3%	1.6%	100.0%
	관련업계	빈도	24	12	4	7		47
		%	51.1%	25.5%	8.5%	14.7%		100.0%
전 체		빈도	126	127	14	28	4	299
		%	42.1%	42.5%	4.7%	9.4%	1.3%	100.0%
		$\chi^2 = 9.135, \quad df = 4, \quad Sig = .058$						

또한, 제주도청 행정조직상에 컨벤션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나는 질문에 직업별 구분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4-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94%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 소속기관에 상관없이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관련업계의 컨벤션센터의 근무자의 경우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70.8%로 높게 나타난 반면 관광협회나 관광업계에서는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소극적 입장이 우세하게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4-3〉 관련업계 컨벤션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교차분석

구 분			컨벤션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				전 체	
			반드시 설 치해야함	설치해도되고 안해도 됨	설치할 필 요가 없음	잘 모르겠음		
관 련 업 계	근무 지별 분류	컨벤션센터	빈도	17	3	2	2	24
			%	70.8%	12.5%	8.3%	8.3%	100.0%
	도관광협회	빈도	7	9	2	5	23	
		%	30.40	39.1%	8.7%	21.7%	100.0%	
	전 체		빈도	24	12	4	7	47
			%	51.1%	25.5%	8.5%	14.9%	100.0%
$\chi^2 = 8.435, \quad df = 3, \quad Sig = .038$								

2) 전담조직 신설에 관한 정책과제

전담조직은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반정책의 수립과 시행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청 행정조직상에 컨벤션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42.1%,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 42.5%,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4.7%로써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관련업계(컨벤션센터, 관광협회)에서는 51.1%가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답변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청에는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물론 시군에도 설치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컨벤션육성 정책 추진체계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2. 지역단위 컨벤션전담기구 설립의 문제

1) 컨벤션 전담기구 설립에 관한 인식과 태도

컨벤션전담기구인 컨벤션 뷰로(CVB)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결과는 반드시 설치해야 32.4%, 가급적 설치해야 52.5%,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반응이 6.0%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 응답자의 84.9%가 설치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컨벤션전담기구인 컨벤션 뷰로(CVB)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직업별 구분에 대한 교차분석은 <표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95%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관련업계에서 57.4%가 반드시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공무원의 27.8%의 의견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4-4> 컨벤션 뷰로 설립의 필요성

구 분		컨벤션 뷰로 설립 필요성					전 체	
		반드시 설치해야함	가급적 설치하는 게 좋음	설치하거나 말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음	잘 모름		
구분	공무원	빈도	70	144	15	12	11	252
		%	27.8%	57.1%	6.0%	4.8%	4.4%	
	관련업계	빈도	27	13	3	2	2	47
		%	57.4%	27.7%	6.40%	4.3%	4.3%	
전 체		빈도	97	157	18	14	13	299
		%	32.4%	52.5%	6.0%	4.7%	4.4%	
$\chi^2 = 17.341$, $df = 4$, $Sig = .002$								

특히, <표4-5>와 같이 컨벤션센터 근무자의 83.3%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다른 분야하고 대조를 이루고 있어 컨벤션업계 스스로 컨벤션 뷰로 설립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5> 컨벤션 뷰로 설립의 필요성(관련업계)

구 분			컨벤션뷰로 설립 필요성					전 체	
			반드시 설 치해야함	가급적 설 치하는 게 좋음	설치하거 나말거나	설 치 할 필요없음	잘 모 름		
관 련 업 계	근무 지별 구분	컨벤션센터	빈도	20	4				24
			%	83.3%	16.7%				100.0%
	도관광협회	빈도	7	9	3	2	2	23	
		%	30.4%	39.1%	13.0%	8.7%	8.7%	100.0%	
	전 체		빈도	27	13	3	2	2	47
			%	57.4%	27.7%	6.4%	4.3%	4.3%	100.0%
		$\chi^2 = 15.168$, $df = 4$, $Sig = .004$							

2) 컨벤션 전담기구 설립에 관한 정책과제

컨벤션 뷰로(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 : CVB, 지역단위컨벤션전담기구)란 국제관광 컨벤션 뷰로 협회(IACVB)⁴⁷⁾는 “여행자들이 비즈니스나 쾌락을 목적으로 한 방문과 도시지역과 도시를 방문하는 모든 형태의 여행자를 소구(訴求)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나 지역을 대표하는 매개조직으로서의 비영리총괄기구(Non-for-profit umbrella organization)”라고 규정하고 있다.

컨벤션 뷰로 설립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32.4%, 가급적 설치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52.5%인 반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4.7%이며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4.4%로 나타나서 컨벤션 뷰로설립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관련업계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7.4%(컨벤션센터 83.3%, 관광협회 30.4%)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설립의 필요성이

47) 국제관광컨벤션뷰로협회(IACVB) : 전세계 26개국에 총 1,050개의 전문기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1914년에 CVB등의 회의와 컨벤션 유치를 위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의산업 종사자들이 전문적인 능력배양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진 기구임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에는 450개 정도의 CB(or CVB)가 있으며 최초의 컨벤션 뷰로는 1896년도 미시건 주 디트로이트에서 결성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49개 국제회의도시에 컨벤션 뷰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컨벤션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컨벤션 뷰로가 설립되어 있고, 지방단위에서는 2002년 2월 부산 컨벤션 뷰로⁴⁸⁾가 설립되었으며, 대구 컨벤션 뷰로⁴⁹⁾도 발족되어 2003년 4월 사무국이 개소되었다. 그러나 제주지역에는 컨벤션 뷰로 설립이 아직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의 문제

1)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인식과 태도

컨벤션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지방의 입장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의 문제가 수도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컨벤션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에 대한 설문항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기적인 전문교육 연수가 가장 많은 36.8%로 답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신규 채용시 선진지 연수를 통한 기법습득이 34.8%로 나타났고, 신규 채용 자격요건의 강화 18.0%, 컨벤션 자격증 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대한 의견은 9.4%로 나타나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은 일반적인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표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력과 컨벤션 전문인력의 문제에 대한 견해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8) 부산컨벤션뷰로(BCVB) : 부산광역시 국제회의산업육성예안(2002. 2월 제정)에 근거하여 20여명의 컨벤션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재원확보시까지 시 조직으로 출범하여 시청사에 2002. 6월 컨벤션뷰로를 설립운영 중에 있음.

49) 대구컨벤션뷰로(DCRB) : 2003. 1. 22일 창립총회를 갖고 대구시, EXCO(대구전시컨벤션센터),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관광협회, 항공사, 여행사, 호텔, 기획업체 등 30여개 기관·단체·업계로 구성된 대구컨벤션뷰로를 발족하고 초대 이사장에 백창곤 EXCO사장을 선임함.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법인형태의 컨벤션뷰로 설립은 대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며 재정규모는 총 5억원 정도로 전망(대구시 지원금 2억원, 자체예산 5천만원, 국비 2억5천만원)

〈표4-6〉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방법(학력별)

구 분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방법					전 체	
			신규채용자 격요건강화	채용시 선지지연수	전문교육 연수	컨벤션학과설 립, 자격증제도	기타		
학력	고 졸	빈도	8	16	9	4		37	
		%	21.6%	43.2%	24.3%	10.8%		100.0%	
	전문대졸	빈도	16	32	36	7		91	
		%	17.6%	35.2%	39.6%	7.7%		100.0%	
	대 졸	빈도	27	48	54	16	2	147	
		%	17.4%	34.8%	36.6%	9.9%	1.2%	100.0%	
	대학원이상	빈도	3	8	11	1	1	24	
		%	12.5%	33.3%	45.8%	4.2%	4.2%	100.0%	
	전 체		빈도	54	104	110	28	3	299
			%	18.0%	34.8%	36.8%	9.4%	1.0%	100.0%
$\chi^2 = 7.017, \quad df = 12, \quad Sig = .856$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방법과 직업별 구분과의 교차분석에서 〈표4-7〉과 같이 95%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업계와 일반주민들의 의견의 경우 정기적으로 교육기관의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으며 특히 일반주민의 경우 컨벤션 학과나 자격증 제도의 활용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표4-7〉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방법(직업별)

구 분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방법					전 체
			신규채용자 격요건강화	채용시 선지지 연수	전문교 육연수	컨벤션학과 설립, 자격증제도	기 타	
구분	공 무 원	빈도	48	93	86	24	1	252
		%	19.0%	36.9%	34.1%	9.5%	0.4%	100.0%
	관련업계	빈도	6	11	24	4	2	47
		%	12.8%	23.4%	51.1%	8.50%	4.3%	100.0%
전 체		빈도	54	104	110	28	3	299
		%	18.1%	34.8%	36.7%	9.4%	1.0%	100.0%
		$\chi^2 = 11.951, \quad df = 4, \quad Sig = .018$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방법에 대해 공무원들 중 소속기관에 따른 의견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표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무지의 차이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아 의견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8>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방법(공무원 근무기관별)

구 분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방법					전 체
				신규채용 자격요건 강화	채용시 선지지 연수	전문교육 연수	컨벤션학과 설립, 자격증 제도	기타	
공 무 원	근 무 기관별	제 주 도	빈도	14	28	29	7		78
			%	17.9%	35.9%	37.2%	9.0%		100.0%
		제 주 시	빈도	18	21	20	4		63
			%	28.6%	33.3%	31.7%	6.3%		100.0%
		서귀포시	빈도	6	15	8	5		34
			%	17.6%	44.1%	23.5%	14.7%		100.0%
		북제주군	빈도	6	16	10	2		34
			%	17.6%	47.1%	29.4%	5.9%		100.0%
		남제주군	빈도	4	12	17	6	1	40
			%	10.0%	30.0%	42.5%	15.0%	2.5%	100.0%
	전 체		빈도	48	92	84	24	1	249
			%	19.3%	36.9%	33.7%	9.6%	.4%	100.0%
			$\chi^2 = 18.018$, $df = 16$, $Sig = .323$						

2)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과제

컨벤션산업의 성공을 위하여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제주지역 컨벤션업계 종사원들의 국제회의 운영능력수준은 응답자의 70% 이상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전문인력 확보의 문제가 수도권지역보다도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음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별다른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제주지역 컨벤션업계 종사원들의 컨벤션 운영능력수준은 아주 미흡한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 정확한 판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아쉬운 실정이다.

4. 컨벤션 유치전략의 차별화에 관한 문제

1) 차별화전략에 관한 인식과 태도

제주지역에 컨벤션유치를 위한 차별화 전략을 묻는 질문에 대해 <표4-9>와 같이 휴양형 관광지의 특성을 전략을 생각하는 의견이 62.1%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중점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24.2%로 나타났으며 시설의 우수성 및 섬이라는 특수성을 살린 전략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표4-9> 컨벤션유치의 차별화 전략

구 분		빈 도	백분율	무응답제외
응답항목	휴양형 관광지 특성	185	61.7	62.1
	국제자유도시 건설 중점 홍보	72	24.0	24.2
	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다는 점 홍보	22	7.3	7.4
	섬이라는 특수성을 살리는 전략	18	6.0	6.0
	기타	1	.3	.3
	전체	298	99.3	100.0
무 응 답		2	.7	
전 체		300	100.0	

2) 컨벤션 유치 차별화전략에 관한 정책과제

제주의 강점인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환경을 이용한 휴양형 관광지 특성을 살린 전략을 구사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컨벤션산업의 차별화를 위하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과 맞물린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분석할 수 있으므로 홍보·유치전략도 그러한 방향으로 맞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제 2 절 지원적 측면에서의 정책과제

지원적 측면의 정책수립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항목은 <표4-10> 과 같이 지원시스템(48.2%), 예산지원(36.4%), 법과제도(15.5%)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원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내용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종합적이라는 면에서 지원적 측면은 앞에서 예산의 중요성이 비중 있게 조사되었는데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어느 한 분야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로 볼 수 있다.

<표4-10>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구 분			지원적 측면			전 체
			법과제도	지원시스템	예산지원	
구분	공 무 원	빈도	13	45	25	83
		가로비율	15.7%	54.2%	30.1%	100.0%
	관련업계	빈도	4	8	15	27
		가로비율	14.8%	29.6%	55.6%	100.0%
전 체	빈도	17	53	40	110	
	가로비율	15.5%	48.2%	36.4%	100.0%	
	$\chi^2 = 6.190$, $df = 2$, $Sig = .045$					

1. 컨벤션산업관련 제도개선의 문제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선에 관한 인식과 태도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적 개선점은 법률의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주민을 제외하고라도 <표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8.6%로 나타나 법령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응답을 요구한 결과로 나타났다.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당초 응답을 기대했던 공무원이나 관계업종에 대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 현상은 관련업계의 경우 더 나타나 신중한 응답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과 관련업계 종사원의 의견을 종합할 때 법의 내용이 형식적이라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29.0%와 국가지원 부문이 미약하다는 의견 이 19.8%로

높게 나타났다.

〈표4-11〉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개선점

구 분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개선점					전 체
			법의내용이 너무 소극적	형식적/하위 법령마련	국가지원 부문 미약	현실무시 내용포함	잘모름	
직업별	공무원	빈도	17	71	45	13	101	247
		%	6.9%	28.7%	18.2%	5.3%	40.9%	100.0%
	관련업계	빈도	5	14	13	2	12	46
		%	10.9%	30.4%	28.3%	4.3%	26.1%	100.0%
전 체		빈도	22	85	58	15	113	293
		%	7.5%	29.0%	19.8%	5.1%	38.6%	100.0%
		$\chi^2 = 5.102$, $df = 4$, $Sig = .027$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선에 관한 정책과제

컨벤션산업에 관련된 현행제도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관한법률(1996.12.30, 법률 제5210호) 및 동법 시행령(1997.4.4, 대통령령 제15337호)과 시행규칙(1997.5.12, 문화관광부령 제37호)이 있고, 제주도에에는 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03년 2월 1일(제2383호)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선 현행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 법의 내용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의견이 7.5%, 법의 내용이 형식적이어서 하위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29.0%, 국가지원 부분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19.8%, 현실을 무시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는 의견이 5.1% 등으로 대답하고 있어 현행법률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행정적 측면의 제도정비에 관한 인식과 태도

제주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적 측면에서 행정적 측면의 제도 정비에 대한 내용은 〈표4-12〉와 같이 컨벤션 업계의 자구노력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앞부분의 육성재원마련의 경우와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12〉 행정적 측면의 제도 정비

구 분		빈 도	백분율	무응답제외
응답항목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	129	43.0	43.6
	지방정부(도,시,군)의 재정적 지원강화	45	15.0	15.2
	도시군에서 의무적으로 국제회의 유치활동	18	6.0	6.1
	컨벤션 업계의 자구노력	102	34.0	34.5
	기 타	2	.7	.7
	전 체	296	98.7	100.0
무 응 답		4	1.3	
전 체		300	100.0	

직업별 구분에 따라 행정적 측면의 제도 정비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표4-13〉 과 같이 공무원의 경우 42.6%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지방지원부분과 지방정부의 의무적인 국제회의 유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업계의 경우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도·시군의 재정적 지원강화에서도 공무원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의무적인 국제회의 유치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주민의 경우 의무적인 국제회의 유치와 컨벤션 관련업계의 자구노력 강화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4-13〉 행정적 측면의 제도정비(직업별)

구 분			행정적 측면의 제도정비					전 체
			국가재정적 지원확대 하는 방향	지방정부(도 시군)의 재정강화	도시군의무적으 로국제회의의 유치활동	컨벤션 업계의 자구노력	기타	
구 분	공 무 원	빈도	106	37	10	95	1	249
		%	42.6%	14.9%	4.0%	38.2%	.4%	100.0%
	관련업계	빈도	23	8	8	7	1	47
		%	48.9%	17.0%	17.0%	14.9%	2.1%	100.0%
전 체		빈도	129	45	18	102	2	296
		%	43.6%	15.2%	6.1%	34.5%	.7%	100.0%
		$\chi^2 = 19.436$, df = 4 , Sig= .001						

4) 행정적 측면의 제도정비에 관한 정책과제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 제도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문결과 업계스스로의 자구노력 부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제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업계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위한 제도가 강화되어야 하며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제도화 되도록 하는 과제를 암시하고 있다.

2. 컨벤션센터 운영재원 확보의 문제

1) 운영재원 확보에 관한 인식과 태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관초기 필요한 것은 운영재원 확보의 문제이다. 방대한 시설관리운영, 고급인력을 운용해야하는 인건비, 기타 홍보물 제작, 유치홍보 및 마케팅 활동,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경비가 만만치 않게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 또한 컨벤션산업 육성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원확보 방법에 관한 도민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설문결과는 <표4-14> 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컨벤션개관초기 운영재원확보 방안과 직업별 구분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95%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업계의 경우 자체수익사업 운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국고보조와 도시군 보조에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4-14> 컨벤션 운영재원 확보방법

구 분		운영재원확보 방법					전 체	
		국가 보조	도시군 보조	자체수익 사업 운영	컨벤션 주주부담	기타		
구분	공 무 원	빈도	171	16	42	18	3	250
		%	68.4%	6.4%	16.8%	7.2%	1.2%	100.0%
	관련업계	빈도	25	8	11	1	2	47
		%	53.2%	17.0%	23.4%	2.1%	4.3%	100.0%
전 체		빈도	196	24	53	19	5	297
		%	66.0%	8.1%	17.8%	6.4%	1.7%	100.0%
		$\chi^2 = 11.661$, df = 4 , Sig = .020						

운영재원확보 방법 중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던 자체수익사업운영에서 바람직한 것으로는 <표4-15> 와 같이 36.6%를 차지한 쇼핑아울렛이 가장 높았고, 카지노(29.8%), 내국인 면세점(28.5%) 순으로 자체수익사업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표4-15> 자체 수익사업 운영

구 분	빈 도	백 분 율	무응답 제외	
응답항목	내국인 면세점	83	27.7	28.5
	카 지 노	87	29.0	29.8
	쇼핑 아울렛	107	35.7	36.6
	기 타	15	5.0	5.1
	전 체	292	97.3	100.0
무 응 답	8	2.7		
전 체	300	100.0		

2) 운영재원확보에 관한 정책과제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개관되면서 초기단계에서 컨벤션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선뜻 이렇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개관초기의 이미지가 향후 성공으로 가는 길에 크게 좌우되고 초기 홍보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3. 국제회의도시 지정에 관한 문제

1) 국제회의도시 지정에 관한 인식과 태도

국제회의도시 지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관한 지방언론 3개 일간지가 수회에 걸쳐 보도하고 있다. 각 언론의 시각을 요약해 보면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받아야 할 필요성은 정부의 행·재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회의도시 조건에 하나도 손색

없이 부합되기 때문에 지정이 당연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후속조치 미비로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⁵⁰⁾

국제회의도시 지정신청은 2001년 7월 서귀포시가 지정 신청해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경주도 신청 중에 있다.

2) 국제회의도시 지정에 관한 정책과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광역시 또는 시를 심의를 거쳐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정해 본 사례가 없다. 그 이유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행·재정적인 뒷받침에 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서 시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도 있는 것 같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의지를 갖고 법령개정 문제 및 재정확보 문제 등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하고 제주도의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중앙절충을 통하여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4. 컨벤션목적지 지역주민의 의식 및 역할의 문제

1) 지역주민의 의식 및 역할에 관한 인식과 태도

컨벤션목적지 지역주민이 컨벤션참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결과 <표 4-16>과 같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41.6%이고 중요한 요소가 55.3%로 응답하고 있어서 그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0) 제민일보(2003. 3. 20일자 사설) : 중략,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우선 지원은 물론 국제회의 유치와 관련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000년 이후 서울·부산·대구 등도 신청했지만 단 한곳도 성사되지 않았다. 서귀포시도 신청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여서 문제가 크다.

제주일보(2003. 1. 28일자 사설) : 중략, 솔직히 전국적으로 본도만큼 국제회의도시로 최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 없다.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국제관광지인데다 대규모 컨벤션센터까지 갖추고 있다. 세계 어느 도시에 견주어 보더라도 국제회의도시에 부족함이 없는 요건을 갖춘 도시이다. 2001년 서귀포시 국제회의도시 신청 역시 이에 근거한 것으로 마땅한 요구였다.

그리고 지역주민 의식이 국제회의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지역주민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의식간의 교차분석을 통해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주민의 필요한 의식의 차이를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 외국어 능력, 문화의식, 국제예절 순으로 답하고 있고,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 문화의식, 외국어능력, 국제예절 순으로 답하고 있어 문화적 인식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는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표4-16〉 지역주민 의식이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구 분		지역주민이 갖추어야 할 의식					전 체		
		국제예절	외국어능력	문화의식	관광소양	기타			
지역주민 이 참가 자들에게 미 치 는 영향	아주 중요한 요소	빈도	26	51	38	7	3	125	
		%	20.8%	40.8%	30.4%	5.6%	2.4%	41.6%	
	중요한 요소	빈도	24	61	66	14	1	166	
		%	14.5%	36.7%	39.8%	8.4%	.6%	55.3%	
	별로 중요하지 않음	빈도	3	4	2			9	
		%	33.3%	44.4%	22.2%			3.1%	
	잘 모름	빈도							
		%							
	전 체		빈도	53	116	106	21	4	300
			%	17.6%	38.7%	35.3%	7.0%	1.4%	100.0%
		$\chi^2 = 8.834$, $df = 8$, $Sig = .356$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역주민의 역할에서 특히 지역주민이 갖추어야 할 의식에 대한 질문에서 외국어 능력이 3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문화의식이 35.3%로써 외국어 교육과 더불어 문화의식의 고양을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역주민의 역할에서 특히 지역주민이 갖추어야 할 의식에 대한 생각은 〈표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별 특성에 따라 90%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 외국어 능력과 문화의식을 똑 같은 수준(37.2%)으로 보고 있고, 관련업계 종사자의 경우 외국어 능력에 46.8%의 비중을 두고 있어 문화의식 25.5%에 비해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17〉 지역주민이 갖추어야할 의식(직업별)

구 분		지역주민이 갖추어야할 의식					전 체	
		국제예절	외국어 능력	문화의식	관광소양	기 타		
구분	공 무 원	빈도	47	94	94	14	4	253
		%	18.6%	37.2%	37.2%	5.5%	1.6%	100.0%
	관련업계	빈도	6	22	12	7		47
		%	12.8%	46.8%	25.5%	14.9%		100.0%
전 체		빈도	53	116	106	21	4	300
		%	17.7%	38.7%	35.3%	7.0%	1.3%	100.0%
		$\chi^2 = 8.932$, $df = 4$, $Sig = .063$						

그리고 지역 주민의 컨벤션산업 육성의 지원분야를 묻는 질문에서 〈표4-18〉 과 같이 관광안내원이 되어 한다는 의견이 33.9% 주변환경정비가 27.5%, 통역자원봉사자가 되어 한다는 의견이 22.0%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직업별 구분에 따른 의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 90%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 직업별 구분에 따라 의견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관광안내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2.1%, 주변환경 정비 의견이 28.5%, 통역자원봉사자가 21.3% 순 인데 비하여, 관련업계에서는 관광안내원 43.5%, 통역자원봉사자 26.1%, 주변환경 정비 21.7%로 나타나고 있어 의견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놓고 볼 때 주민협조 시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4-18〉 컨벤션 목적지 지역주민의 지원분야

구 분		컨벤션 목적지(개최지) 지역주민의 지원분야					전 체	
		통역자원봉사자가 됨	관광안내원이 됨	주변환경을 정비함	지역특산품 제공	기 타		
구분	공 무 원	빈도	53	80	71	36	9	249
		%	21.3%	32.1%	28.5%	14.5%	3.6%	100.0%
	관련업계	빈도	12	20	10	1	3	46
		%	26.1%	43.5%	21.7%	2.2%	6.5%	100.0%
전 체		빈도	65	100	81	37	12	295
		%	22.0%	33.9%	27.5%	12.5%	4.1%	100.0%
		$\chi^2 = 8.009$, $df = 4$, $Sig = .091$						

2) 지역주민의 의식 및 역할에 관한 정책과제

컨벤션개최지역 주민의식이 컨벤션참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6.9%가 중요한 요소라고 조사되었으며, 주민들이 갖추어야 할 의식으로서는 외국어 능력(38.7%)·문화의식(35.3%)·국제예절(17.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컨벤션산업을 중요하게 다루는 제주지역과 같은 지역에서는 컨벤션목적지(개최지) 지역주민의 역할이 컨벤션 참가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정책이 수립시행 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3 절 환경적 측면에서의 정책과제

제주지역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적 측면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은 <표4-19> 와 같이 대외적 여건(47.0%), 시설여건(35.0%), 대내여건(1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의 분포는 기타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표4-19>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적 측면

구 분		빈 도	백분율
환경적 측면	대 외 여 건	47	47.0
	대 내 여 건	18	18.0
	시 설 여 건	35	35.0
	전 체	100	100.0

1. 항공노선 접근성 확충의 문제

1) 접근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컨벤션 목적지로서의 항공노선의 수에 관한 여건은 <표4-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만족수준이라는 의견은 7.0%인 반면, 전체적으로 외국항공노선이 모자란다는 의견이 35.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국내 항공노선이 모자란다는 의견도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외 항공노선 모두가 모자란다는 의견도 28.8%를 차지하여 늘어날 수요에 비해 항공노선의 준비

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0〉 항공노선 접근성 인식정도

구 분		빈 도	백분율
항공노선	대체로 만족	21	7.0
	국내항공노선이 모자란다	54	18.1
	외국항공노선이 모자란다	107	35.8
	국내, 외 모두 모자란다	86	28.8
	잘 모르겠다.	31	10.3
	전 체	299	100.0

2) 접근성 확충에 대한 정책과제

접근성의 문제는 전술한 회의개최지 결정요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컨벤션 참가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여행경비와 탑승시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설문결과에서도 대체로 만족하다는 의견은 7.0%인 반면, 외국항공노선이 모자라 다는 의견이 35.8%, 국내·외 노선 모두 모자라 다는 의견이 28.8% 등 항공노선에 대하여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그 대책이 요구된다.

2. 국제회의시설 확충의 문제

1) 회의시설 확충에 관한 인식과 태도

제주 컨벤션산업의 확충을 위한 시설여건에서 회의시설의 확충문제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표4-21〉과 같이 더 이상의 확충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35.1%로 나타났으나 더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20.3%로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기존시설 즉 특급호텔의 회의시설과 대학시설의 개선을 통한 간접 확충을 통해서 시설확충을 나타내는 의견이 42%에 달하여 전체 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이미 건립된 시설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기존 시설의 활용을 통해 개선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표4-21〉 국제회의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

구 분		빈 도	백분율	무응답 제외
시설확충에 대한 의견	더 이상 확충이 필요 없다	104	34.7	35.1
	더 건립해야 한다	60	20.0	20.3
	기존 특급호텔의 시설을 개선	109	36.3	36.9
	대학교 회의시설을 개선	17	5.7	5.7
	기 타	6	2.0	2.0
	전 체	296	98.7	100.0
무 응 답		4	1.3	
전 체		300	100.0	

각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시각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직업별 구분에서 〈표4-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으나 상대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현 시설을 개선하면서 신규건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관련업계에서는 현 시설을 개선하고 더 이상 확충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중을 낮게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4-22〉 국제회의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직업별)

구 분			시설확충 의견					전 체
			더 이상확충 이 필요없음	더 건립해 야 함	기존 특급호 텔시설 개선	대학교회의 시설을 개선	기 타	
구분	공 무 원	빈도	85	53	94	14	3	249
		%	34.1%	21.3%	37.8%	5.6%	1.2%	100.0%
	관련업계	빈도	19	7	15	3	3	47
		%	40.4%	14.9%	31.9%	6.4%	6.4%	100.0%
전 체		빈도	104	60	109	17	6	296
		%	35.7%	20.3%	36.8%	5.7%	2.0%	100.0%
$\chi^2 = 6.877$, $df = 4$, $Sig = .143$								

그리고 국제회의 개최지로서의 숙박시설에 대한 평가는 〈표4-23〉 과 같이만족 할 만한 수준이상이라는 평가가 56%이고 모자란 수준이라는 응답이 40%로 나타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23〉 숙박시설 수준 인식

구 분		빈 도	백 분 율
숙박시설	아주 충분한 수준	10	3.3
	대체로 만족수준	160	53.3
	조금모자란 수준	105	35.0
	아주 모자란 수준	17	5.7
	잘 모르겠다	8	2.7
	전 체	300	100.0

2) 국제회의시설 확충에 관한 정책과제

회의시설의 확충에 관한 문제는 현시점에서는 대부분 특급호텔 회의시설을 활용하고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국제회의 유치에 있어서 시설의 우수성이 타 지역과 비교가 되고 또한 컨벤션 수요의 증가를 대비해서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규모를 어떻게 확충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편, 숙박시설의 문제에 있어서도 2011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를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컨벤션 관련 관광상품 개발의 문제

1)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인식과 태도

제주가 컨벤션 참가자들에게 더욱 호응을 얻기 위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분야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표4-24〉와 같이 카지노 25.2%, 골프장 22.1%, 유원지 시설 21.8%, 면세점 15.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24〉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구 분		빈 도	백분율	무응답 제외
응답항목	카 지 노	74	24.7	25.2
	골 프 장	65	21.7	22.1
	케 이 블 카	19	6.3	6.5
	면 세 점	44	14.7	15.0
	유원지 시설	64	21.3	21.8
	기 타	28	9.3	9.5
	전 체	294	98.0	100.0
무 응 답		6	2.0	
전 체		300	100.0	

2)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정책과제

컨벤션개최지로서의 매력성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카지노, 골프장, 케이블카, 면세점, 유원지 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적절히 확충하여 관광과 연계시키느냐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 중 하나라고 본다.

4. 앵카호텔(Anchor Hotel) 건립의 문제

1) 앵카호텔 건립에 관한 인식과 태도

앵카호텔은 컨벤션센터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컨벤션참가자들에게 품위 있는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다.

제주도내 3개 일간지에서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앵카호텔 건립문제를 관심 있게 다루고 있다.

언론의 시각을 요약해 보면, 앵카호텔은 필수적인 시설로서 유리한 패키지가격 결정, 미팅 룸 연계 활용, 식음료 서비스 지원, 숙박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게 되어 국제회의 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문관광단지 2단계지구의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 및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다.⁵¹⁾

호텔 건립의 가장 관건인 한국관광공사 소유토지 출자문제는 제주도 측과의 출자 협의 과정에 있어 아직은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앵카호텔 건립에 관한 정책과제

컨벤션 앵카호텔 건립의 필요성은 컨벤션 목적지로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정이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관광공사 소유토지 현물출자의 문제, 현물출자 후 호텔건립사업비 확보 및 건립방법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고, 부차적으로는 사업 발주 후 약 5년이 소요되어 호텔건립이 마무리되고 정상가동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51) 제민일보(2003.1.29일자) : 중략, 컨벤션 앵카호텔 건립은 국제회의 유치와 각종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로 국제회의 유치 때 유리한 가격책정은 물론 미팅룸 연계 활용, 서비스 지원, 숙박문제 등을 해결하게 된다.

제주일보(2003.1.30일자) : 중략, 특히 앵카호텔 건립에 따라 상대적으로 개발이 저조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지구의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 뿐 아니라 국제회의를 중심으로 한 관광객 유치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

第 V 章 濟州地域 컨벤션産業 育成戰略

제주지역 컨벤션산업 육성전략의 기본목표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국제회의도시 제1호 실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안정적 운영기반확충, 컨벤션전담조직의 설립운영, 컨벤션목적지 주민의식의 선진화 등을 통한 우리 나라 제1의 리조트형 컨벤션 목적지로 육성하기 위함에 있다.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 및 지방언론의 시각 등을 기초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정책적 과제에 대한 육성기본전략은 3개 분야 12대 전략으로써 <표5-1>과 같다.

<표5-1>분야별 컨벤션산업 육성전략

추진분야	육 성 전 략	추진주체	비고
관리적 측면	1. 컨벤션전담조직 신설 2. 지역단위 컨벤션전담기구 설립 3. 컨벤션전문인력 확보대책 강구 4. 컨벤션 유치홍보전략의 차별화	지방자치단체 ICC JEJU	
지원적 측면	1. 컨벤션산업관련 제도개선 2. 컨벤션센터 운영재원확보 3. 국제회의도시 지정육성 4. 컨벤션목적지 지역주민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 ICC JEJU 관련업계·도민	
환경적 측면	1. 접근성 확보대책 강구 2. 국제회의시설 확충 3. 컨벤션 연관 관광상품 개발 4. 앵카호텔의 조속한 건립	지방자치단체 ICC JEJU 관련기관·업계	

자료 : 필자 작성

그리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 및 도내 일간지의 시각을 보도된 내용을 근간으로 간접 조사한 결과도 함께 정책과제별 육성전략의 대안으로 삼고자 하여 그 내용을 <표5-2>와 같이 요약 정리하였다.

〈표5-2〉 정책과제별 육성전략 간접조사 결과

분석 대상	정책과제	육성전략(방안)		
		지역언론 시각	대학교수 등 의견	관련공무원 의견
관리적 측면	1. 컨벤션전담조직			
	2. 지역단위 전담기구	· 제주관광통합 마케팅전담 컨벤션뷰로설립	· 컨벤션총괄팀 운영(전문가+공무원)	· 컨벤션지원협의 회구성운영계획
	3. 컨벤션 전문인력	· 전문인력부재인 지역의 한계극복	· 도내대학과의 산학연계 · 국제회의기획 전문가 양성	· 컨벤션기획사 2급자격시험시행 (1급 2004년 예정)
	4. 컨벤션 유치홍보전략	· 관련업계간 긴밀한 협력체제 · 세밀한 유치논리 개발 · 국내회의 유치중요	· 4개시군 통합마케팅 · 카지노, 골프장 추가건설 · 인천공항과 협조 제주홍보	
지원적 측면	1. 컨벤션관련 제도	· 국가재정 지원 강화	· 관련법 조속 정비	· 법개정 추진 중 · 예산반영 노력 중
	2. 컨벤션센터 운영재원	· 경영합리화방안 급선무(적자보전) · 기동률 제고 · 도비지원 신중	· 정부지원을 위한 역량결집 · 컨벤션관련수익 컨벤션 재투자	
	3. 국제회의도시 지정	· 국제회의도시 지정 당연 · 정부의지가 문제	· 도 전체를 지정 토록 법개정 필요	· 서귀포시 신청 (절충 중)
	4. 지역주민의 역할	· 컨벤션과산학협 동으로 자원봉사	· 자원봉사데이터 구축 · 관리부서일원화	
환경적 측면	1. 접근성 확보대책	· 중·대형항공기 우선 배정 · 거점도시연결편 확충	· 지역항공사설립 동북아노선개설 · 저비용소형항공 사업 시행	
	2. 국제회의시설 확충			
	3. 연관 관광상품 개발	· 문화적욕구충족 을 위한 상품	· 생태, 체험관광 · 전통의상 패션쇼 · 재래시장 관광코스화	
	4. 앵카호텔 건립	· 앵카호텔건립 민자유치가 관건	· 민자유치 호텔 건립(국제공모) · 지정민박제운영	· 호텔부지 출자 마무리단계

자료 : 최근 1년간 제주도내 지방일간지 3개사의 보도내용 중 발췌 작성

제 1 절 정책과제별 육성전략

1. 관리적 측면의 육성전략

1) 컨벤션 전담조직 신설 등 행정체계확립

제주지역이 컨벤션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컨벤션센터가 건립되어 개관을 한 시점인 만큼 컨벤션관련 행정체계 확립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설문결과 컨벤션육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통수준'으로 답하고 있고 도 행정조직상에 컨벤션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으며, 부산광역시에는 이미 '국제회의 담당'이 국제협력과 내에 설치되어 컨벤션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컨벤션산업 육성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체계의 확충이 필요하다.

컨벤션산업이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관광진흥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컨벤션산업 육성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도 단위의 '컨벤션산업 육성과' 또는 '컨벤션산업 육성담당'의 신설이 필요하다.

둘째, 컨벤션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컨벤션관련 단체나 업체의 근무경력 소지자인 전문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행정실무에 활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기획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컨벤션 상품과 예산·홍보·인력수급 등의 기획기능을 강화하여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회의 유치 및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회의 정보체계 확립을 위한 행정지원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국제회의는 일반적으로 개최 2~3년 전에 개최지가 결정된다. 국제회의 관련 정보체계 수립에 따른 다양하고 유효한 정보의 수집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보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행정지원체계의 수립은 필수적이다.

다섯째,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단기·중기·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컨벤션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반조성, 재정지원, 홍보·유치체계확립, 정보체계 구축, 국제회의도시 육

성, 전문인력 양성대책 등에 대한 단기·중기·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⁵²⁾

2) 컨벤션 전담조직의 설립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더불어 국제회의와 관광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은 「국제회의+관광」을 하기에 너무나 적절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여건과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컨벤션을 성공시키고 정착시키는 구심점으로서의 선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민·관 협의체인 컨벤션 전담기구(가칭 제주컨벤션뷰로(JCVB : Jeju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설문결과에서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의견을 내고 있고, 부산·대구 등 타 시도나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설립을 해야 하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 설립을 위한 근거도 도 조례로 마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설립의 시기, 구성 및 방법, 운영재원 확보의 문제가 가장 현안이라고 본다.

첫째, 설립의 시기는 가급적 빨리 잡아야 한다.

다행히 제주도는 금년 상반기 중에 컨벤션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다행스런 일이다.⁵³⁾

시기를 빨리 잡을수록 운영을 체계화 할 수 있고 국제회의 유치 시 지역대표성과 대외 이미지 구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제주를 대표할 수 있고 제주컨벤션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회원이 구성되어야 하겠다.

지방자치단체·관광협회·관광관련 대학·항공사·특급호텔·여행사·관광업계·컨벤션센터 등 구성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아 컨벤션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⁵⁴⁾

자금동원 능력, 관련조직간의 협력상태, 지역정서 등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형태로

52) 이장춘·박창수, 『국제회의론』, 대왕사, 2001, PP. 323~324.

53) 한라일보(2003.2.21일자) : 중략, 제주도는 오는 3월 22일 개관하는 제주관광종합센터를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병행, 동북아의 리조트형 컨벤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올 상반기내에 제주국제컨벤션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4) 제주일보(2003.2.22일자) : 중략, 협의회는 제주컨벤션뷰로(JCB)설립이전 단계인 민·관협력기구로서 의결기구인 컨벤션진흥위원회와 컨벤션사무국으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특히 컨벤션센터와 관광관련업체간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회의유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호텔, 렌트카, 항공요금 결정과 인센티브에 대한 중재·조정역할을 하게 된다.

탄생되어야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담기구 운영재원 마련을 위한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도 조례상 도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 기관·단체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재원을 충당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은 마련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법인형태의 대구 컨벤션 뷰로도 국비·시비 등으로 상당액의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대부분 행정으로부터의 보조금과 사업 수탁료 및 회원회비(20~30%)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사업예산이 적어 민간의 거출금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의 적극적 지원과 운영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재원조달은 설립과 운영의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되, 설립 시에는 정부와 지방의 지원으로 운영 시에는 수혜자부담원칙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⁵⁵⁾

3) 컨벤션 전문인력 확보대책 강구

컨벤션산업의 현장운영은 전문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컨벤션의 성공적인 개최여부도 운영하는 전문인력의 자질에서 판가름나게 된다. 따라서 컨벤션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확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제주 지역인 경우 서울지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04년 아시아개발은행(ADB)총회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유치해 놓고 있다. 이 회의는 전세계 62개국의 국가원수 급과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등 3,500여명이 내도 할 예정이다.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하여는 최소한 5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제주 안에서는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토될 수 있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중·장기적인 전략으로서 컨벤션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제주관광대학이나 기타 전문대학에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확대·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55) 김준호, “제주 관광컨벤션전담기구(CVB)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림대학교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87.

이러한 경우 재정적인 지원과 졸업생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인센티브제가 부여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국가가 새롭게 인정하는 자격증제도를 활성화하여 “컨벤션 기획사”⁵⁶⁾같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2003년부터 문화관광부 주관, 노동부 시행의 제2급 컨벤션 기획사 자격시험이 시행된다. 2004년부터는 제1급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⁵⁷⁾

컨벤션기획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컨벤션센터, 국제회의 운영과 관련된 설비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셋째, 현재 국제회의산업분야 종사자들의 국제회의 운영능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기관이나 관광공사 등에 교육을 위탁운영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해외 국제회의 전문기관과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신규채용요건을 강화하고 신규 채용자 에게는 실무에 들어가기 전에 선진지 연수를 통하여 일정한 실무수습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4) 컨벤션 유치홍보전략의 차별화

제주컨벤션센터가 동북아 최고의 리조트형 컨벤션센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지명도가 있어야 하고 대외적인 지명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나 국내 다른 컨벤션센터와는 차별화 된 제주형 홍보전략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설문결과 및 전문가의 견해 등 종합적인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제주의 강점인 휴양형 관광지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휴양형 관광지의 특수성은 컨벤션 참가자들이 컨벤션목적지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에 직접적으로 부합되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는 홍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56) 컨벤션기획사(PCO :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 국제회의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행사 주최측으로부터 위임받아 업무를 대행해주는 사람을 말함.

57) 제민일보(2002.12.22일자) : 국제회의의 관련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내년부터 문화관광부 주관·노동부 시행의 제2급 컨벤션기획사 자격시험이 시행된다. 필기시험은 내년 8월10일이며 2개월 후 실기시험을 치른다. 또 2004년에는 제1급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는 기본적으로 휴양형 관광지의 매력을 잘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전략사업인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은 세계인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장점일 수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살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셋째, 유치된 대형 국제회의를 통한 홍보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홍보에 고객을 찾아가서 하는 홍보와 찾아온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있다면, 찾아온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경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쉽고 확실히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에 제주에서 개최기로 확정된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총회(PATA)와 아시아개발은행총회(ADB)를 통한 홍보의 성공여부에 제주의 컨벤션산업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⁵⁸⁾

넷째, 홍보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4개 시·군으로 분산된 홍보업무를 단일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제안은 비용을 줄이면서 홍보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⁹⁾

다섯째, 컨벤션유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컨벤션개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를 감안할 때 컨벤션 유치를 위한 각계각층의 내외 도민적 관심을 제고시키는 측면에서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그 근거를 도 조례에 반영시켜 컨벤션유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9조의 '민자유치에 대한 포상'규정에 1천만 불 이상을 유치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투자유치금액에 대한 1천분의 1의 범위에서 포상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그 좋은 사례라고 본다.

58) 김창식 산업정보대교수(제민포럼, 2002.12.9) : 중략, 제주도의 국제관광도시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지금까지 수도권 중심의 국제회의유치에서 벗어나 세계 최첨단 시설을 갖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함으로써 제주문화의 국제화를 드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국제컨벤션센터는 관광산업시설이라는 인식이 높아짐으로써 지속적으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결집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59) 김종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제민포럼, 제민일보 2003.3.11일자) : 중략, 밖에서 보는 제주를 발리·페낭·세부·해남도보다도 인지도가 낮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4개 시군으로 분산된 해외마케팅과 홍보활동의 창구일원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2. 지원적 측면의 육성전략

1) 컨벤션산업 육성관련 제도개선

(1) 컨벤션산업 육성법 개정

컨벤션산업에 관련된 현행 국가적 차원의 제도는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 5210호로 제정된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1997년 4월 4일 대통령령 제 15337호로 제정된 시행령, 1997년 5월 12일 문화관광부령 제37호로 제정된 시행규칙의 내용으로 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동 내용에 있어서 국가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및 행정·재정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행정·재정상의 지원업무에 대하여는 한국관광공사(컨벤션 뷰로)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국제회의의 유치를 희망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과 국내개최가 확정된 국제회의의 주관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유치절차 안내 및 자문, 유치제안서 작성, 홍보물 제공, 해외 지사망을 통한 유치지원 등의 행정적인 사항과 유치제안서 인쇄, 기념품 등의 단순한 보조금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고, 후자의 경우에도 재정적인 지원은 참가안내서 인쇄, 관광프로그램운영, 홍보물 제작 등 매우 경미한 부분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현행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너무 형식적이고 국가 지원부분이 미약하며 소극적이고 비현실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첫째, 국제회의의 유치는 개최지 및 국가의 관련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공적기능을 인정하여 재정적인 국가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국제회의도시지정에 관한 세부절차 등 시행을 위하여 미비된 제도를 보완·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가칭, '국제회의 복합시설지구'(Convention Area)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⁶⁰⁾ 이는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인근에 호텔 군과 각종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위치하도록 하여 다양하고 특화 된 국제회의도시개발과 공간구조조성을 기대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각종 법률에 의한 지원기준을 통일⁶¹⁾시켜 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60) 이장춘·박창수, 전게서, p.316.

61) 한국관광연구원,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안)』, 정책연구보고서98-01, 1998, P.95.

(2) 행정적 측면의 제도개선

행정적 차원의 제도로써 제주도는 '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3년 2월 제정(조례 제2383호)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 타 시도 중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시도는 부산광역시뿐인데, 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해 본 결과 <표5-3>과 같이 자치단체내부에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부산광역시에만 명문화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대동소이하여 별다른 차이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 설문결과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감안하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개선대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컨벤션업계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설문결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이어 두 번째로 '컨벤션의 자구노력'을 주문하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는 법을 개정하여 개선한다고 보면 컨벤션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도 조례를 개정하여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지원도 업계 스스로 자구노력을 잘하는 업계에 차별적으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책무를 규정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제도인 도 조례상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는데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는 광역자치단체만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책무를 규정화 하여 도와 공동추진 또는 역할분담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컨벤션산업을 제주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변화하는 세계경제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기본배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산업을 유치하여 차별화 된 친 환경적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한다는 발전 전략의 배경에서 출범하였다⁶²⁾. 따라서, 컨벤션산업이 제주지역에 걸 맞는 지식기반산업이라고 본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상에 컨벤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항신설 등의 방법으로

62)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가이드』, 제주도(기획조정담당관실), 2002, p. 22.

반영하여 국가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표5-3〉 부산광역시조례와 제주도조례 비교표

구 분	제 주 도	부 산 광 역 시
조 례 명	제주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
조례번호(제정)	제2383호(2003.2.12)	제3757호(2002.2.21.)
구 성 주 요 내 용	제1조 목적 • 관광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	목적 • 관광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제2조 정의(생략)	정의(생략)
	제3조 제주도의 책무 • 국제회의시설 확충 • 국제회의전문인력 양성 • 각종 회의 유치 및 촉진 • 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 • 종합적 추진계획 수립	기본계획의 수립 • 국제회의 유치촉진사항 • 국제회의 개최사항 •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국제회의시설 설치확충 •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
	제4조 국제회의의 유치개최지원 • 각종자료제공 • 국내 및 해외홍보 등 국제회의 개최자에 대한 지원	국제회의의 유치개최지원 • 각종 자료제공 • 국내 및 해외홍보 등 국제회의 개최자에 대한 지원
	제5조 지원협의회 설치 • 협의회의 기능 • 협의회 위원 구성 및 임기	지원협의회 설치 • 협의회의 기능 • 협의회 위원구성
	제6조 사무의 위탁	전담기구의 설립(법 제8조 기구)
	제7조 재정지원 • 도와 위탁계약하는 사업의 경비 • 지방비 지원이 필요한 경비	파견근무 • 시 이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전담기구에 근무
	제8조 국제회의전담기구의 설치 • 별도법인으로 설치 • 설립 및 운영소요 경비 -도 출연금 -정부, 기관·단체의 출연금 -기타수입	전담기구 설립운영기금 설치 • 시 출연금 • 정부, 기관단체의 출연금 • 기타수입
	제9조 공무원의 파견 • 소속 공무원을 파견	국제회의시설 설치운영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설치
	제 10 조 국제회의산업육성유공자에대한 포상 • 협의회의 의결(예산의 범위안에서)	-
부 칙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공포 후 1월경과 후 시행

자료 : 필자 작성

2) 컨벤션센터 운영재원 확보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개관되면서 초기단계에서의 이미지가 향후 성공여부에 크게 좌우되고 초기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

건물관리비, 인건비 등 필수 재원은 물론, 유치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한 경비가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데, 현실적으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언론계나 전문가나 도민들 모두가 컨벤션센터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를 최대의 현안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컨벤션이 관련산업 전반적으로 지역에 파급되는 경제유발효과는 대단히 크나 컨벤션센터에 들어오는 직접적인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데도 점차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대사업이 없이는 가동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간 40~60억 원⁶³⁾의 적자가 발생하게되는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대책 강구를 위하여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데에 고민이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국가의 보조, 자체수익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컨벤션육성기금 조성 등 크게 3~4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대 중앙절충을 강화하여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현행 국제회의산업육성법 상 운영경비 지원은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으며,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컨벤션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논리를 만들어 무장하고 관계부처 등 예산확보노력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우선 컨벤션은 관광문화사업의 기본 인프라(Infrastructure)로서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은 도민 주 공모를 통한 도민참여 등 민·관 합작투자형식으로 만들어진 수범사업이라는 점 등을 부각시킨 논리개발이 주효할 것이다.

63) 한라일보(2002.10.7일자) : 중략, 제주도는 오는 4월 개관되는 컨벤션센터가 연간 40~60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 마련에 착수했다.

둘째, 적정한 자체수익사업의 선정 및 효율적 운영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용역결과 내국인면세점과 카지노사업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다.⁶⁴⁾

설문조사결과는 쇼핑아울렛 사업을 가장 우선 순위로 꼽고 있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만큼, 사업계획 수립 시 감안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여러 가지 논란은 많지만 제도의 한계 및 현실성 부족으로 가시화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풀기 위해서는 관련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접근해 나가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방법은 설문조사에서나 언론의 시각 및 전문가의 의견에서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⁶⁵⁾

그러나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의미에서 또한 제주관광을 살리는 의미에서 주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⁶⁶⁾ 외국이나 타 시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례는 당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야하는 이유를 든다면, 컨벤션을 유치하면 발생하는 효과가 지역에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고용이 창출되며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컨벤션 유치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수는 컨벤션센터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⁶⁷⁾

64) 한라일보(2003.3.21일자) : 중략, 면세점과 카지노시설 등의 부대사업 없이는 적자운영을 벗어나지 못하는 각국의 컨벤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01년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운영적자 보전대책으로 내국인면세점(직영)과 카지노(위탁)사업시오는 2007년 흑자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5) 제주일보(2002.8.8일자) : 중략, 제주관광종합센터의 경영합리화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자액을 보전할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할 우려를 낳고 있다.

66) 한라일보(2002.9.28일자) : 중략, 관광종합센터는 개관 후 경영과정에서 적자를 기록하게되고 이에 따른 자치단체의 보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략, 도 관계자는 “부산과 대구 컨벤션센터는 전시장을 겸해 연간 적자폭이 각각 13억원·46억원이지만 제주는 더 많은 적자가 예상된다며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지만 관광종합센터가 관광인프라인 점을 감안, 행정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67) 정범진 제주대학교 교수(시론, 제주일보 2002.10.8일자) : 중략, 국제회의를 유치하게되면 부가적으로 사람이 오고 이에 따라서 호텔, 식음료, 문화상품, 관광 등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들 산업에서 재화가 들어오는 것이다. 이들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제주도에 고용이 창출되고 부가 쌓이며 세수가 증대된다. 즉 추가적인 세금수입은 컨벤션센터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의 보조와 자체수익사업으로 보전이 된다면 굳이 이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다.

넷째, 컨벤션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제주지역 전반적인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한 방법이라고 본다.

우선적으로는 기금설치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 조성근거 및 조성방법 등을 규정화 하는 작업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국제회의도시 지정 육성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근거는 현행 국제회의산업육성예관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지정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①지정대상 도시 안에 전문회의 시설이 있거나 그 시설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②지정대상 도시 안에 숙박시설·교통시설·교통안내 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③지정대상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것 등을 정하고 있다.

국제회의도시에 대한 지원근거로서 동법 제7조에서 국제회의도시 안에서 행하는 사업중 국제회의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⁶⁸⁾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에서는 국제회의도시 또는 국제회의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 관련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국제회의도시 지정관련 상황을 보면, 국제회의산업육성예관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주시, 서귀포시 등 문화관광부에 지정신청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정부(문화관광부)에서는 지금까지 어느

6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

1. 호텔을 비롯한 각종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2.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및 개수

도시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서귀포시가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육성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조치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의 하위법령이 조속히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하는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는 지정에 따른 협의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며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미비 되었다는 의견이기 때문이다.⁶⁹⁾

둘째,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는 사전 지원예산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무리 법적인 지원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원예산의 확보 없이는 사실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지원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셋째,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받기 위한 논리개발 및 대 중앙절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주지역은 컨벤션센터가 건립 되어 있고, 신라호텔·롯데호텔·하얏트호텔 등 특급관광호텔인 숙박시설이 분포되어 있으며, 국제적인 천혜의 관광지로서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연간 450만 명이 방문하는 휴양관광도시이고 20억 인구를 배후시장으로 한 동북아의 요충지이며 특히 서귀포시의 중문단지에는 세계정상들의 회담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며, 세계밀레니엄관 건립 기공 등으로 휴양을 겸한 국제회의 지역으로 안성맞춤인 곳이라고 확신한다. 국제회의도시 지정 시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정논리와 중앙절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⁷⁰⁾

69) 제주일보(2003.2.11일자) : 중략,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관계자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원할 수 있다’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 지원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제주도의 경우 도 전체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토록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70) 제주일보(사설, 2003.1.28) : 중략, 혹시 정부가 서울, 부산, 대구, 경주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의식하고 본도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망설이는 것이라면 큰 잘못이다. 물론 이들 지역에도 국제회의시설이 들어서 있다하나 국제회의산업의 전제조건이 자연관광을 겸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본도 국제회의도시 지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4) 컨벤션 목적지 지역주민의 역할 강화

지역주민의 태도는 컨벤션목적지의 심리적 매력에 영향을 주는데, 긍정적인 영향 인식에서 비롯된 호의적인 태도는 목적지의 매력을 더해 주며, 참가객이 목적지 결정시 고려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서⁷¹⁾ 관광객의 욕구 만족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컨벤션목적지 지역주민의 의식과 태도가 컨벤션참가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으므로 주민의 역할이 컨벤션 육성에 중요한 파트너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첫째, 전문적인 능력 소유여부에 관계없는 일반주민으로의 역할에 맞는 일들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비하여 참가자에게 청결한 인상을 심어주는 일, 문화적인 소양을 갖추어 선진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일, 지역의 관광지나 문화유적지를 익혀 두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 간단한 언어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 등이다.

둘째, 통역원 및 관광안내원 등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활용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2002 월드컵 때 자원봉사자 역할을 했던 도민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들도 조직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면 경험을 얻어 훌륭한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⁷²⁾

중·장기적으로는 산학협동을 통하여 시민의 자원봉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전문적인 자원봉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내 대학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 자원봉사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⁷³⁾

이러한 일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프로그램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통합 관리하는 노력과 함께 대 주민 협조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71) Chunk. Y. Gee, Resort Development and Management, 1988, p. 62

72) 문성중 한라대학 교수(시론, 제주일보 2003.4.28일자) : 중략, 제주도도 지난 월드컵 때의 봉사자들을 이용, 항시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행사 때마다 활용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73) 한라일보(2002.12.17일자) : 중략, 도는 이에따라 컨벤션센터와 함께 산학협동을 통해 연회서비스 관련 자원봉사자를 육성한 업체를 선정, 국제회의관련 통역, 안내, 미디어센터 지원, 통신, 전산, 사무지원 등을 훈련할 계획이다.

3. 환경적 측면의 육성전략

1) 접근성 확보대책 강구

접근성에 대하여는 전술한 회의개최지 결정요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컨벤션참가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여행경비와 탑승시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영종도 국제공항이 건설되어서 내한하는 접근성은 많이 보완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 컨벤션산업의 주요시장이 유럽과 미주시장을 감안할 때 이들 주요시장으로부터의 원격성은 컨벤션참가자들로부터 소외될 확률이 높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으로 내한한 후 김포공항으로 이동하여 제주 행 항공기를 탑승하도록 되어 있고, 국제직항노선은 일본(오사카·나고야·도쿄·후쿠오카)과 중국(베이징·상해), 태국(방콕) 등 3개국 7개 노선에 불과 하여 1일 평균 697명의 수송능력으로서 국제항공노선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항공사 설립계획에 운항노선을 국내선에 한정하지 말고 동북아 주요도시와 부정기노선을 확대 개설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대학교수의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⁷⁴⁾

둘째, 인천공항에서 제주를 목적지로 하는 참가자에게는 바로 제주공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항공 연결망(hub and spoke system)을 확보하는 방안을 인천공항 측과 긴밀히 협의 강구하여야 한다. 김포공항으로 이동하여 제주 행 항공기를 갈아타는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공항확충의 계획을 실현시켜 컨벤션참가자들의 편리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적으로는 국제선 대합실 신축 및 공항시설 확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74) 김창식 산업정보대 교수(제민포럼, 2002.11.5일자) : 중략,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항공기 사업은 국내선에 한정하지 말고 동북아 지방도시와 부정기 노선을 확대개설해 국제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선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도민의 이동편의와 국제관광객 접근편의를 병행하는 교통망 확충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넷째, 수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정석비행장⁷⁵⁾을 제2공항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서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접근성의 하위요소인 출입국 절차 및 관세통관절차의 간소함, 비자관계 등도 발전적으로 보완·개선하여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공항으로 변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국제회의시설의 확충

제주지역 회의시설 수준은 전국 107개소 중 11개소로써 서울에 이어 부산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으며, 전문회의시설인 컨벤션센터 4,300명과 특급호텔 회의장 수용인원 6,120명(대회의장 기준)을 포함하면 10,000명 수준이다. 또한 특급호텔 회의시설 수준은 호텔건립 년도에 따라 시설자체가 노후하거나 현대적인 면에서 처지는 양상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설문결과 신규 건립을 할 필요가 없으니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수준에서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신규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 없다는 의견이 서로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종합 판단해 보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회의시설 건립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회의의 수요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건립비가 거액이고 민자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컨벤션 증가율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회의시설을 확충하는 중·장기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설의 다 기능적 요소를 감안하여 국제회의, 전시회, 체육, 문화 등 다목적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효용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존 회의시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 특급호텔 회의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가급적 현대시설 수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문제를 업계와 협의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회의시설 건립 및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75) 정석비행장 : 한진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에 소재하고 있는 비행장으로써 조종사 훈련시설, 관제탑, 자동착륙 유도장치 등을 갖추고 있어 A300급 중형 항공기도 이착륙 할 수 있는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음.(연합뉴스, 2003.5.20)

시설건립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등 세제감면을 확대하여 민간자본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건립이나 시설개선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자금지원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가지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3) 컨벤션 관련 관광상품 개발

컨벤션 참가자들은 단순히 회의만을 참가하거나 본연의 비즈니스만을 위하여 많은 일정과 경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다.

그 지역의 문화를 바로 보고 싶어하고 그 지역의 관광명소를 보고 싶어하며 휴양과 오락을 즐기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타 지역에 비하여 매력이 넘치는 컨벤션 목적지가 되느냐 하는 것이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장기적으로는 표적시장 컨벤션 참가자들의 기호에 맞는 관광기반시설을 적절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

표적시장이 일본이라면 일본인이 좋아하는 골프상품 제공을 위하여 골프장을 건설해야 하고, 중국인이라면 카지노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⁷⁶⁾

둘째, 제주만이 자랑거리인 현장체험상품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름 생태관광, 갈 옷 등 제주특산물 가공현장체험, 평화의 섬 테마의 상품, 제주 해녀 체험상품 등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여 새로운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⁷⁷⁾

셋째, 제주인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생활현장을 관광코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재래시장과 오일장의 경우 외국인들에게 제주 민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인데도 이점이 간과되어 왔다. 재래시장과 오일장을 관광코스에 포함시켜 외국인과 지역주

76) 김종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제민포럼, 2003.3.11일자) : 중략, 해외로 나가는 국내 골프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추가건설이 불가피하다. 2020년에 1억명이상이 해외여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관광객을 제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좋아하는 카지노를 중심으로 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77) 문성중 한라대학 교수(시론, 제주일보 2003.4.28일자) : 중략, 기존관광코스과 더불어 오름생태관광, 체험관광을 가미하고 제주지역 특산물 가공현장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제주전통의상인 갈옷의 생산과정과 공정과정을 직접 체험케 하고 즉석 패션쇼 연출 등 추억으로 남게 할 수 있다. 제주도민들의 생활현장도 관광코스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민이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컨벤션 개최기간 동안의 이벤트를 새롭게 개발해야 할 것이다.

컨벤션 개최기간을 겨냥한 이벤트를 특별기획 하되 제주고유의 전통문화를 독창적으로 연출하여 제주 섬에 대한 새로운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⁷⁸⁾

4) 앵카호텔(Anchor Hotel)의 조속한 건립

국제회의의 참가자들은 회의시설과 인접된 호텔을 숙박지로 지정하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회의참여에 편리하여 숙식과 비즈니스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컨벤션센터가 소재 한 중문단지의 경우 우리 나라 유수의 숙박시설이 들어서 있기는 하지만, 컨벤션센터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인접호텔이 없는 게 아쉬움이다. 물론 컨벤션센터 당초계획에서도 앵카호텔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건립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첫째, 건립부지 확보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로부터의 현물출자를 실현시켜야 한다.

당초 컨벤션부지 16,600평(135억원 상당)을 현물출자 한데이어 인접 호텔부지 16,140평(148억원 상당)도 현물출자가 되어야 한다.

다행히 지속적인 절충 끝에 현물출자 방침은 결정되었다고 하니 다행스런 일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출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자의 양보와 긴밀한 협의로 최종타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⁷⁹⁾

부지출자가 확정되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제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고, 1,4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8년쯤 5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게 된다.⁸⁰⁾

둘째, 민자유치를 통하여 건립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지를 출자하더라도 건립에 따르는 재원을 지방비로 확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실정으므로 국내외 자본을 끌어들이어 건립토록 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며, 국제

78) 문성중 한라대학 교수(시론, 제주일보 2003.4.28일자) : 중략, 개최기간 이벤트도 어느 지역에서나 비슷하게 연출되는 전통행사가 아니라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현대문화와 어우러지게 연출함으로써 제주에 대한 신선한 이미지를 처음부터 느끼게 해야 할 것이다.

79) 한라일보(2003.4.4일자) : 4일 제주도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분양실적이 저조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지구의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연접토지 1만6천여평(148억원상당)부지를 현물출자 키로 하고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거쳐 지난 1월말 이사회를 통해 최종의결 했다고 밝혔다.

80) 제주도, 제주도정(다이내믹 제주), 2003.6.5일자

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었으니 별 문제는 없다고 본다.

셋째, 앵카호텔이 건립되어 정상가동 시까지 앵카호텔 대리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정 민박제'운영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서귀포시는 중문·예래동 지역 민박 30여 개소를 컨벤션센터 지정민박으로 선정해 놓고 있다. 민박경영자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교육·통역시스템·인터넷 교육 등 종합적인 손님맞이 교육을 실시하는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활성화되면 인근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도 생기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1차적으로는 중문관광단지 소재 호텔과 2단계로는 서귀포시소재 호텔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제주 전역에 걸친 호텔과 협약을 맺어 규모별 컨벤션에 대비한 숙박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육성전략 추진주체의 역할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주지역의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시군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컨벤션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컨벤션육성정책 추진에 대하여 도민이 보는 시각은 설문조사결과 <표5-4>와 같이 후한 점수를 주고 있지 않고 있다.

<표5-4> 컨벤션산업 육성 정책에 관한 인식과 태도

구 분			컨벤션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인식과 태도					전 체
			아주잘하고 있음	잘하고 있는 편임	보통수준임	아직미흡한수준임	형편없는수준임	
구분	공 무 원	빈도	6	68	122	53	3	252
		%	2.4%	27.0%	48.4%	21.0%	1.2%	100.0%
	관련업계	빈도		5	22	17	3	47
		%		10.6%	46.8%	36.2%	6.4%	100.0%
전 체		빈도	6	73	144	70	6	299
		%	2.0%	24.4%	48.2%	23.4%	2.0%	100.0%
			$\chi^2 = 14.675$, df = 4, Sig = .005					

따라서, 국가나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컨벤션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을 현시점에서 재점검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1) 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⁸¹⁾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동 조례가 정하는 일련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진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배려가 있기를 기대한다.
- (3) 제주지역 컨벤션산업 육성의 총괄적 기능과 시군간·업계간·도민간 등 조정적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단기·중기·장기계획을 마련하고 투자계획 등 연차별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⁸²⁾에 반영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도 도에 준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규정화 하여야 한다.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보아 시군에서도 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도에 준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시군 조례로 제정·규정화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역할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계획대로 준공이 되고 2003년 3월에 개관을 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정상적인 컨벤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갖은 노력을 통하여 유치된 국제회의도 OPEN 초기에서부터 성공적으

81) 제3조(제주도의 책무) : ① 제주도는 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2.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3. 관광박람회, 스포츠행사, 전시회 등 각종 이벤트 행사 유치 및 국제회의 유치 촉진
4. 기타 국제회의 산업육성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

8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2.1.26공포)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2011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종합발전계획으로서 21세기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중·장기전략임

로 개최하여 대외 이미지를 높이는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국제회의 개최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제적인 망신일뿐더러 향후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신인도의 문제로 헤어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개관 초기의 이미지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확실한 운영 전략이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컨벤션센터는 경쟁력 제고, 운영재원 조달, 운영능력 제고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컨벤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컨벤션산업의 경쟁력은 컨벤션서비스 수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⁸³⁾

한편, 대전발전연구의 조사에 의한 제주컨벤션 산업의 국내경쟁력 지수가 서울, 고양에 이어 3위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⁸⁴⁾

둘째, 가동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컨벤션센터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안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의 문제이다. 국내외 이벤트 유치로 통한 가동률 제고, 수익사업 운영, 관련단체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방법 등 가능한 방안을 총 동원시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셋째, 컨벤션 운영능력의 확보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요건이다.

회의운영 프로그램의 구성 및 진행, 컨벤션시설 활용 프로그램 및 진행 등 운영기능을 차질 없이 기획·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를 체득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유능한 고급인력의 확보를 위한 노력과 기존인력의 능력배양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컨벤션유치를 위하여 국제간 교류협력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보고 몇 가

83) 신왕근 제주관광대학 교수(제민일보, 2003.3.20일자) : 중략, 특히 컨벤션기획 및 운영에 있어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의·전시·이벤트관련 기획사·동시통역요원 및 장비들이 열악함. 전문인력의 부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84) 제민일보(2002.8.29일자) : 중략, 최근 대전발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제주컨벤션산업의 국내경쟁력 지수는 전국 3위로 나타났다.

지 대안들을 정리해 볼 수 있다.

- (1) 컨벤션 표적시장의 기관·단체간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교류로 맺어진 인적관계를 통한 정보의 입수, 문화·체육의 교류를 통한 이벤트 창출 등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⁵⁾

- (2) 컨벤션참가자들 중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컨벤션 참가자들은 일반적으로 학자·기업인·정치인 등 각분야에서 영향력있는 사람들이기에 제주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⁸⁶⁾

- (3) 도·시군 자치단체가 맺고 있는 자매결연지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각종 국제기구에도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방법이다.

현재 도·시군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은 6개국·13개지역⁸⁷⁾이다. 이러한 지역과의 친분관계를 활용한다면 컨벤션유치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동종업계간 효율적인 연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동종업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하면 경쟁관계이면서 우호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처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기존 업체와의 적절한 관계설정을 통하여 노하우를 익히면서 위상을 높이는 효율적인 연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해외 컨벤션센터와의 자매결연이나 우호협정체결, 국내 업체와의 정기회의 개최 등의 형식이 있을 수 있고, 세미나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업계 스스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85) 김창식 산업정보대교수(제민포럼, 제민일보 2002.11.15일자) : 중략, 동북아 지방도시와 관광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행정당국·의회·교육기관·항공사·관광사업자·상공단체 등 관련단체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차별화 교류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86) 문성중 한라대학 교수(시론, 제주일보 2003.4.28일자) : 중략, 컨벤션 참가자들의 인적자원 또한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해야 할 것이다. 각 분야 Opioion Leader이기 때문에 제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87) 강애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정책 실태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28 : 제주도-미국 하와이주, 인도네시아 발리주, 러시아 사할린주, 중국 해남성, 제주시-일본 와카야마시, 중국 계림시, 서귀포시-일본 가라쓰시, 북제주군-중국 내주시, 미국 샌타로사시, 일본 산다시, 남제주군-일본 나가군, 중국 흥성시, 뉴질랜드 파파쿠라시.

3. 관련업계 및 도민의 역할

제주도 개벽이래 단일 건물로는 최대의 사업비를 투자한 기념비적 시설에 거는 도민의 기대 또한 대단하다.

이 국제자유도시의 핵심적 인프라시설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관련업계 및 도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어떠한 과제와 역할이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첫째, 관련업계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통합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서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컨벤션산업은 종합서비스 산업으로서 산업의 특성상 어느 한 분야가 낙후해도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⁸⁸⁾

따라서 관련업계가 고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도민모두의 의식의 선진화와 국제화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이 중요하고 우리의 업무관행이 국제규격(Global Standard)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 도민의 따뜻한 환대정신이야말로 글로벌 경쟁체제에 살아남는 가장 기본적인 밑거름이라고 믿고 있다.

88) 제민일보(2003.3.21일자) : 중략,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유치된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관련업계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第VI章 結 論

컨벤션산업은 공해 없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지역경제유발효과가 큰 종합적인 산업인 만큼, 여러 국가나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경쟁적으로 육성시켜 나간다는 전략적 대상이 되고 있는 산업이다.

오늘날 개방화·정보화의 세계적 추세는 국경을 넘나드는 인적교류와 정보교류 및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교류의 중계자로서의 컨벤션산업은 세계평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에서도 사람·자본·상품이 자유로운 이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목표를 두고 내도 관광객 1천만 명·도민소득 2만 불 시대의 비전을 담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년 3월 제주도민의 관심 속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오랜 산고 끝에 개관을 하면서 컨벤션산업 육성이라는 절대절명의 정책적 과제가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컨벤션개최로 인한 파급효과인 정치·외교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심리적 효과, 교육적 효과, 환경적 효과 이외에 가장 중요한 효과인 경제적 유발효과가 2,000명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인 경우 140억원 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컨벤션산업의 육성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정책입안자를 비롯한 도민 모두가 간과할 수 없는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컨벤션의 이론적 근거와 제주지역 현황분석, 도민의견 및 언론의 시각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도출된 3대 분야 12대 육성과제를 중심으로 제주지역 컨벤션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육성전략을 다음과 같이 요약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운영적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야 한다. 행정조직 내부에 컨벤션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관련기관·단체·업계간 조정 및 연계·통제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컨벤션 민관협의체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설립하여 제주지역 컨벤션산업의 중추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강구하여야 하고 제주만의 차별화 된 홍보유치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컨벤션산업 육성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국제회의산업육성법 미비점 및 신제도를 반영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여야 하며 컨벤션센터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지원확대 및 자체경영 수익사업을 발굴·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시가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공감이가는 논리 개발과 중앙절충을 강화해야 하고, 컨벤션 목적지로서의 지역주민의 지원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셋째, 대내·외적 컨벤션 환경과 인프라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확충해 나가야 한다.

취약한 항공노선 접근성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국내·외 관계기관 및 항공사와의 지속적인 절충을 강화해 나가며, 미래를 대비한 국제회의 시설의 개선 및 신규 건립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컨벤션참가자들에게 매력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골프장·카지노·면세점 등 적절한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하며, 컨벤션센터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엔카호텔의 건립문제는 토지확보의 매듭과 민자유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본 전략의 구체화와 제주지역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주체인 지방자치단체·제주국제컨벤션센터·관련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아진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민이 갈망하는 컨벤션산업의 육성방향은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점과 위협요인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동북아 최고의 리조트형 컨벤션으로 자리 매김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 민·관·업체가 일치 단결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냉정히 분석해내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강구해나면서 제 몫을 다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관과 더불어 제주지역 컨벤션산업 육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컨벤션관련 전반적인 면을 다루다 보니 어느 한 분야만을 심층적으로 취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조사대상이 공무원에 많이 편중되고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반영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내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과 언론의 시각을 보도내용을 통하여 직접조사가 아닌 간접조사의 형식으로 분석·반영했다는 아쉬움을 인정하면서 향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더욱 밀도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參 考 文 獻

I. 國內文獻

1. 저 서

- 김 병 훈·김 현 지, 『국제관광론』, 백산출판사, 1999.
김 성 혁, 『국제회의 산업론』, 대왕사, 1997.
이 장 춘·박 창 수, 『국제회의론』, 대왕사, 2001.
이 향 구, 『관광학 서설』, 1995.
채 용 식, 『국제관광정책론』, 학문사, 1997.
최 태 광, 『국제회의 경영론』, 1996.

2. 논 문

- 강 숙 영, “제주지역주민의 컨벤션산업 영향인식과 매체이용특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강 애 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정책 실태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 준 호, “제주관광컨벤션전담기구(CVB)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림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 대 현, “한국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발전적 전략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1999.
박 창 수, “국제회의산업진흥정책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장 길 수, “컨벤션산업과 지역경제”, 충남대학교 대학원, 1998.
장 윤 선, “우리 나라 컨벤션산업의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경영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3. 보도자료

제민일보 : 2002.8.29일자, 2002.11.5일자, 2002.11.15일자, 2002.12.9일자

2002.12.22일자, 2003.1.29일자, 2003.3.11일자, 2003.3.20일자
 2003.3.21일자
 제주일보 : 2002.8.8일자, 2002.10.8일자, 2003.1.28일자, 2003.1.30일자
 2003.2.11일자, 2003.2.22일자, 2003.4.28일자
 한라일보 : 2002.9.28일자, 2002.10.7일자, 2002.12.17일자, 2003.2.21일자
 2003.3.21일자, 2003.4.4일자

4. 기 타

김 용 관, 『경기도 컨벤션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웃고 문화사, 2000.
 박기홍·김기수,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안)』, 한국관광연구원, 1998.
 삼성경제연구소, 『제주관광종합센터 및 수익사업추진용역보고서』, 2001.
 제 주 도, 『도정백서』, 제주도(정책기획관실), 2001.
 _____, 『주요관광행정현황』, 제주도(관광진흥과), 2003.
 _____, 『제주도정(다이내믹 제주)』, 제주도(공보관실).
 _____,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02~2011.
 _____,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가이드』, 제주도(기획조정담당관실).
 최 승 담, 『컨벤션센터 건립방안』, 교통개발연구원, 1994.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조사』, 웃고 문화사, 2000.
 _____, 『국제회의 개최현황』, 2000.
 _____, 『국제회의 개최현황』, 2001.
 한국관광연구원,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안)』, 1998.
 _____, 『1997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7.
 황 희 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차별화 방안』, 2001제주국제회의설명회
 자료(2001.11.29~11.30)

II. 外國文獻

Bradley M. Braun,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Conventions : The Case of Orlando, Florida", Journal of Travel Research, (winter 1992).

Chunk. Y. Gee, Resort Development, 1988.

Coninck, "International Meetings in 1996."

Edward Inskeep, "Tourism Planning" , (New York : VNR, 1991).

Ghislaine de Coninck, "International Meetings in 1996." UIA Welcome Page.

Online. Internet. 11 Sep. 1997.

Richard B. Gartell, "Strategic Partnerships for Convention Planning : The Role of Convention and Visitor Bureaus in Convention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Hospitality Management, Vol. 10, No. 2.

S. Buchbinder, "Second - Tier Advantage," Association Meetings, Vol. 6. No. 3. 1994.



ABSTRACT

A Study on the Strategy to Promote the Convention Industry:
Focusing on the Case of Jeju

Yang, Byung Sik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Kim, Sung Jun

The convention industry is a high value-added industry that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local economy. As a result, many countries and regions have a keen interest in the industry, competitively fostering the industry as a strategic industry.

While today's world trend towards open and information-oriented societies has contributed to active exchanges in the areas of human resources, information and cultures, the convention industry, as an intermediary of international exchanges, has contributed to world peace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Jeju is striving to establish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which aim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Jeju residents through the free movement of people, goods and capital, and to realize Jeju's vision of 10 million tourists and 20,000 dollars of income per capita.

In addition, with the deep concern of Jeju resident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JEJU opened its doors to the public after suffering from many difficulties. Since then promotion of the convention industry has surfaced as a pending and crucial local issue.

This study aims to use systematic discussions to raise problems related to the convention industry and seek a developmental strategy.

For this study, advance research was conducted involving documents, thesis, and case studies. The study was verified by a questionnaire conducted with public officials and professionals engaged in the convention and the tourism industries. Afterwards, the study was complemented by collecting the opinions of professors, other professionals and the local press.

Based on the above-mentioned survey, the study is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promotion strategies.

First, at an early stage we should establish a management and steering system to promote the convention industry. This new organization, which will assume full responsibility, should be established and its major function should be control over and mediation and connection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groups and business circles. A convention-related consultation body should be established to serve crucial and substantial functions. The organization should also draw up plans for how to secure and educat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and design unique public relations strategies for Jeju.

Second, the policy to promote and support the convention industry should be reinforced so that substantial and visible benefits are produced. The compromis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intensified so that the convention industry promotion law is revised and the new system is reflected. Besides, to secure the operational expense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JEJU, financial support should be extend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ICC JEJU itself should run profitable businesses.

The authorities concerned should try to widen the belt of consensus that Seogwipo city will be designated as a city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They should also develop a program for the local residents of the convention destination and devise a management system for volunteers.

Third,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vention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should be continually improved and expanded.

To maximize visitors' accessibility to Jeju, the air routes from Jeju to major cities should be expanded and middle and large-scale aircraft should operate. Furthermore, when establishing the local airway, new inexpensive air routes to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should also be considered.



Tourism programs for conventioners should be developed and infrastructure including golf courses, casinos and duty-free shops should be gradually expanded.

In conclusion, the direction to be taken for promoting the convention industry should maximize Jeju's strengths, make the best use of opportunities, actively improve weaknesses and threats, and make Jeju the best resort-style convention destination in North Asia.

To this end, the private and governmental sectors and business circles should exert concerted efforts not only to analyze pending problems but also to find proper alternatives.

Lastly, it is my hope that this study, along with the opening of the ICC JEJU, will contribute to promoting the convention industry in Jeju.

설 문 조 사 서

- 컨벤션산업 육성전략에 관한 연구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제주지역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설문의 내용은 익명으로 전산 처리되고 순수하게 통계자료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적 응답도 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내용은 본 연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진지하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 4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양 병 식 드림

※ 본 설문에 관한 문의는 전화(064-710-2031), 팩스(064-710-2039),
E-mail(ybs1114@provin.jeu.kr)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I.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운영적 측면

7. 귀하께서는 제주도청의 행정조직 내부에 국제회의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담조직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② 가급적 설치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③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④ 설치할 필요가 없다
⑤ 잘 모르겠다
8. 귀하께서는 민·관으로 구성된 컨벤션 뷰로(컨벤션협의체)를 설립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② 가급적 설립을 하는 것이 좋다
③ 설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④ 설립할 필요가 없다
⑤ 잘 모르겠다
9. 귀하께서는 제주지역 컨벤션업계 종사원들의 국제회의 운영능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① 국제회의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 급에 와 있다
② 적절한 수준이라고 본다 ③ 아직은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
④ 크게 모자란 수준이다 ⑤ 잘 모르겠다
10. 귀하께서는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는 다음 중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신규채용 자격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신규채용시 일정기간 선진지 연수를 통하여 전문기법을 익혀야 한다.
③ 정기적으로 교육기관의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④ 컨벤션학과 설치대학을 늘리고, 자격증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⑤ 기 타()
11. 귀하께서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관이후 정상운영 될 때까지 운영재원 조달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가의 보조 ② 도시군의 보조 ③ 자체 수익사업 운영
④ 컨벤션 주주의 부담 ⑤ 기 타()
12. 귀하께서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자체수익사업을 운영한다면 어떠한 사업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내국인 면세점 ② 카지노 ③ 쇼핑 아울렛 ④ 기 타()

Ⅲ.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적 측면

13. 귀하께서는 현행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법의 내용이 너무 소극적이다
 - ② 법이 너무 형식적이어서 실현을 위한 하위법령이 정비되어야 한다
 - ③ 법의 내용 중 국가의 지원내용이 너무 미약하다
 - ④ 현실을 다소 무시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 ⑤ 잘 모르겠다
14. 귀하께서는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면 어느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가의 재정적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 ② 지방정부인 도·시군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 ③ 도·시군에서는 의무적으로 국제회의 유치활동을 벌여야 한다
 - ④ 컨벤션관련 업계의 자구노력이 강화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 ⑤ 기 타 ()
15. 귀하께서는 국제회의 개최시 지역주민은 어떤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통역 자원봉사자가 된다
 - ② 관광안내원이 된다
 - ③ 주변 환경정비를 한다
 - ④ 지역 특산품을 제공한다
 - ⑤ 기 타 ()
16. 귀하께서는 컨벤션산업 육성 재원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가가 매년 일정액을 지원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정액을 지원하여 기금을 마련한다
 - ③ 관련업계가 회비를 징수하여 적립한다
 - ④ 컨벤션 수익사업 등 자구노력으로 마련해야 한다
 - ⑤ 기 타 ()

IV.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적 측면

17. 귀하께서는 최근 타 시도에서도 컨벤션 건립 및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① 우리 나라 국제회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②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경쟁대상이 생기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 ③ 앞으로 다른 지역은 컨벤션시설 건립을 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④ 다른 시도에서도 전문 컨벤션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⑤ 기 타()
18. 귀하께서는 국제회의 개최지로서의 제주의 숙박시설 숫자가 어느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 ① 아주 만족할 정도로 충분한 수준이다 ②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 ③ 조금 모자란 수준이다 ④ 아주 모자란 수준이다
 - ⑤ 잘 모르겠다
19. 귀하께서는 컨벤션 개최지로서의 제주의 항공노선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① 대체로 만족한 수준이다. ② 국내항공노선이 모자라다
 - ③ 외국항공노선이 모자라다. ④ 국내노선·외국노선 다 모자라다.
 - ⑤ 잘 모르겠다.
20. 귀하께서는 제주가 국제회의 참가자에게 더욱 호응을 얻으려면 다음중 어떠한 기반시설을 우선 확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카지노 ② 골프장 ③ 케이블카 ④ 면세점 ⑤ 유원지시설
 - ⑥ 기 타()

V.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대응전략 탐색

21. 귀하께서는 제주지역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도·시군)의 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 ① 아주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는 편이다 ③ 보통 수준이다
 - ④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⑤ 아주 형편없는 수준이다

※ 아래사항은 통계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입니다.
해당번호에 √표 또는 ()속에 기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 용>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학력은 ?
① 고 졸 ② 전문대졸 ③ 대 졸 ④ 대학원 수료이상
3. 귀하의 직종은 ?
① 일반직 ② 전문직 ③ 기능직 ④ 별정직 ⑤ 기 타()
4. 귀하의 직급은 ?
① 9급이하 ② 8급 ③ 7급 ④ 6급 ⑤ 5급 ⑥ 4급이상
5. 귀하의 공무원 재직기간은 ?
① 10년 이하 ② 10 ~ 20년 ③ 21년 이상
6.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 자치단체는 ?
① 제주도 ② 제주시 ③ 서귀포시 ④ 북제주군 ⑤ 남제주군

<컨벤션관련업계 임직원 용>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학력은 ?
① 고 졸 ② 전문대졸 ③ 대 졸 ④ 대학원 수료이상
3. 귀하의 근무분야는 ?
① 컨벤션 관리분야 ② 컨벤션 집행분야 ③ 관광관리분야
④ 관광현업분야 ⑤ 기타분야()
4. 귀하의 직책은 ?
① 일반사원 ② 중간 관리직 ③ 관리직 ④ 기 타()
5. 귀하의 현 근무분야 종사기간은 ?
① 10년 이하 ② 10 ~ 20년 ③ 21년 이상
6.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자치단체는 ?
① 제주시 ② 서귀포시 ③ 북제주군 ④ 남제주군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귀하께서 주신의견은 고귀한 자료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